

言論報道事項

2012. 05. 07(月) 朝刊

關聯報道 · 爭點社說

<소방방재청 관련보도>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청도 재난위험현장 방문 각신문사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폐막, 6만1000명 방문 news1
- 소방안전엑스포 '생명존중메카' 우뚝 경상매일신문
-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대박' 경북매일
- 2012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시상식 중앙일보
- 말뿐인 지진 대비...공공시설도 미흡 K B S
- 부산 노래주점 불 9명 사망·25명 부상...원인은? 각신문사
- 에버랜드 불...200여명 대피 각신문사
- 40대 女112신고 하고도 화재현장서 참변 각신문사
- 사천서, 산불 '야간진화용 항공기' 힘 못써 연합뉴스
- 송변전시설 내진설계, 대폭 강화한다 건설경제
- 서울시 침수 방지 물막이판 1만4624개 보급 파이낸셜
- 물에 잠길 몰디브, 당신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겨레
- 중국 대기오염물질 정보 한국에 실시간 알리기로 동아일보
- [사설] 또 화재 참사 ... 말로만 때운 예방대책 각신문사

<행정안전부 관련보도 외>

- 조직·인사 vs 지방행정 '두 축' 전문가 포진 서울신문
- 공무원 시험에 고교 과목...대졸 수험생 "역차별" 한국일보
- 세종시 살기 좋아요 대전이 코앞에 있어요 동아일보



이중근 청도군수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상습침수지역인 청도읍 고수8리 현장을 방문해 상황설명을 듣고있다.

“상습침수피해 방지 노력해주세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청도 우수저류시설 방문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지난 3일 청도군 청도읍 고수8리 청도역 주변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목적은 집중호우가 예상

되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저류조, 고지배수관로 등 주요구조물을 조기완공하여 올 여름에는 침수로 인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추진 중인 고수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국비 60억 등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2011년 4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을 75%이다.

특히 저류시설 8천500t, 고지배수관로 L=550m, 저류조 유입관로 L=440m 등 주요구조물을 우수기 전 5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소방방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먼곳까지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고 또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재난 예방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관기자 ggkim@kyongbuk.co.kr

소방방재청장, 청도 방문 우수저류사업장 점검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이 지난 3일 오전 10시경 청도읍 고수 8리 청도역 주변의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목적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저류조, 고지배수관로 등 주요 구조물을 조기 완공하여 올 여름에는 침수로 인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추진 중인 고수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국비 60억 등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2011년 4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을 75%이다. 특히 저류시설 8,500톤,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이 지난 3일 경북 청도에 공사 중인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

고지배수관로 L=550m, 저류조 유입관로 L=440m 등 주요구조물은 우수기 전 5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소방방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먼곳까지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

해 사업장을 점검하고 또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재난예방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윤행기자 joyh@ksmnews.co.kr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 우수저류시설 현장 점검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은 지난 3일 청도읍 고수 8리 청도역 주변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한창 공사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우수기를 대비해 현장을 둘러보고 저류조, 고지배수관로 등 주요 구조물을 조기완공해 올 여름에는 침수로 인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추진 중인 고수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국비 60억 등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2011년 4월 착공해 올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75%이다. 전경문 기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청도 재난위험현장 방문

【청도】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은 최근 청도읍 고수 8리 청도역 주변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이 청장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우수기에 대비해 재난위험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청장은 저류조, 고지배수관로 등 주요구조물을 조기 완공해 올 여름에는 침수로 인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수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국비 60억 등 총 사업비 99억원을 들여 2011년 4월 착공, 올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저류시설 8천500㎡, 고지배수관로 L=550m, 저류조 유입관로 L=440m 등 주요구조물을 우수기 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재난예방 사업에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승택기자

대구연합일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청도 고수리 우수저류시설 추진현장 점검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이 지난 3일 청도읍 고수 8리 청도역 주변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찾았다.

이청장의 이날 방문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우수기를 대비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저류조, 고지배수관로 등 주요구조물을 조기 완공해 올 여름에는 침수로 인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 이루어졌다.

현재 추진 중인 고수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국비 60억 원 등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2011년 4월 착공해 올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75%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류시설 8500톤, 고지배수관로 L=550m, 저류조 유입관로 L=440m 등 주요구조물을 우수기 전 이날 30일까지 마무리가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이 지난 3일 청도읍 고수 8리에 공사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찾았다.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소방방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먼 곳까지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고 또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 고마움을 전한 뒤 앞으로 더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재난예방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규 기자 kyg4360@hanmail.net

국제소방안전엑스포 폐막, 6만1000명 방문

news1

(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2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9회 국제소방안전엑스포에 지난해 보다 1만명 늘어난 6만1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엑스코에 따르면 업계에서 2만2000여명, 일반 체험객 3만8900여명, 해외 바이어 290여명 등이 방문해 내수 상담 1258억원, 수출 상담 3250억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엑스코 측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층건물의 피난기구, 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으로 신제품과 신기술이 대거 선보였기 때문”이라며 “소방안전 분야 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계·감리업체, 건설·주택관리 업계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은 4~5개 계열사별로 셔틀버스를 동원, 직원들을 실어나르는 등 소방안전 제품과 정보, 트렌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학계와 전문기관은 한국화재소방학회의 초고층 건축물 방재, 친환경방염제에 관한 한일 국제심포지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특수재난 및 소방용로봇 세미나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33개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주목했다.

모두 20개국, 159개 업체가 참가한 이 박람회에서도 소방펌프와 이동형 소방장비를 생산하는 JM모터스는 방글라데시, 터키 등 5개국과 14만달러 어치의 수출 상담을 벌였고 구조구급차 제조업체인 오텍은 10억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소방장비 전문 생산업체들이 적잖은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소방방재청 주도로 ‘제1회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포럼’이 발족, 눈길을 끌었다.

포럼에 참여하는 종교계와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심폐소생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협의체를 구성, 생명존중문화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엑스코 박종만 사장은 “올해 참가 기업들의 열기와 해외바이어들의 움직임 종합해 보면 고층건축물에 우리 기술과 제품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수출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국제소방엑스포전시장 전경.

소방안전엑스포 ‘생명존중메카’ 우뚝

수출상담 실적 ‘3,250억’…6만여명 관람 ‘성료’

대구 엑스코에서 지난 2~4일까지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소방안전엑스포에 총 관람객 6만1,270명과 내수 1,258억 원, 수출 3,250억 원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올해 행사에는 소방안전 분야 공무원 뿐 만아니라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체 그리고 건설 및 주택관리 업체 등의 관계자들의 방문도 크게 늘어났다.

또 삼성과 LG, GS, 한화, 포스코,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등 대기업 관람객이 크게 증가했다.

또 한국화재소방학회가 마련한 초고층 건축물 방재, 친환경방염제에 관한 한일 국제심포지움, 한

국 소방산업기술원이 개최한 자연재해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국가산업단지 화재 등 특수재난 및 소방용 로봇에 대한 국제세미나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33개 분야의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다양한 분야의 관람객을 확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총 20개국 159개 업체가 366부스(체험 야외시연포함 712부스) 규모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분야별 6개의 특별관을 테마별로 전시, 출품한 기업들의 마케팅 집중도를 높였다.

소방방재청 주도로 생명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운동은 ‘생명

을 구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종교계, 전문가 단체(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심폐소생협회) 사회단체, 공공기관(대한적십자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체를 구성, ‘제1회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포럼’을 이번 엑스포에서 발족함으로써 대구의 박람회가 ‘안전’뿐만 아니라 ‘생명존중’의 메카로도 기록되는 의미를 가진 행사로 남게 됐다.

한편 올해 전시회와 컨퍼런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시회 기간 중 현장에서 30개 업체가 160부스를 사전 예약해 내년도 전시회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김재호기자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대박'

신제품 대거 출시로 6만명 관람... 4천500억원 상담실적 올려

제9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6만1천27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4천500여억원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엑스코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소방안전박람회업체 관계자 2만2천명, 일반 체험 등 3만8천976명, 해외 294명 등 지난해 보다 1만명이 늘어난 총 6만1천290의 방문객이 찾았고 내수 1천258억원, 수출 3천250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이처럼 관람객이 증가한 것은 피난기구, 제연설비전시 등 신제품과 신기술이 대거 출시된 때문이며 특히 소방 안전분야 공무원가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체, 건설 및 주택관리 업체 등의 관계자들의 방문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삼성과 LG등 대기업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방안전제품에정보와 제품 트렌드에큰 관



제9회 대한민국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지난 4일 엑스코에서 막을 내렸다. 박람회장이관람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심을 나타냈고 한국화재소방학회의 한일 국제심포지움,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특수재난 및 소방용 로봇에대한 국제세미나 등 역대 최대규모인 33개 분야의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다양한 분야의 관람객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가업체들의 상담도 활발했다. 총 20개국 159개업체가 366부스

(체험 야외시연포함 712부스)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구조구급차 제조업체인 오텍은 10억원, 화재방지 IT업체인 (유)성문은 10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소방엔진펌프 전문업체인 조은펌프는 3억원 계약실적을, 메디아나는 전시회 개장 첫 날 신제품 20대를 판매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3개국 294여명의 해외바이어들도 대거 참가해 국내업체들과 상담을 벌이는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전시회와 컨퍼런스의 질적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시회 기간 현장에서 30개 체가 160부스를 사전 약해 내년도 전시회 개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박종만 엑스코 사장은 "올해 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열기와 해외바이어 움직임이 종합하면 국내에서 건설되는 고층건축물에우리기술과 우리 제품을 적용하려는 업계의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어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수출산업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돼 전시회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 10주년인 만큼 소방방재청, 대구시, 기술지원기관, 업계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한국을 대표하는 특화전시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근영기자

중앙일보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E07면 경제



2012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시상식

중앙일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후원한 '2012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품질과 서비스의 질을 소비자들이 높이 평가한 32개 브랜드가 상을

받았다. 앞줄 왼쪽부터 한정일 NS쇼핑 이사, 조경희 바디프랜드 대표, 전주호 씨앤전자 대표, 정은수 교보약사자산운용 대표, 김희태 우리아비바생명 대표, 허중희 우리은행 상무, 한스 김 토다이코리아 회장, 이재성 한국관광공사 정책사업본부장, 심재웅 LIG손해보험 이사, 김영표 신한은행 부행장, 남기섭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임춘호 리딩투

자증권 본부장, 강제욱 빙그레 팀장, 신장룡 다비치안경체인 이사, 둘째 줄 왼쪽부터 손은경 GS칼텍스 상무, 김학균 형지리테일 사업본부장, 채홍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김재일 카페베네 부회장, 백경일 트윅스트런 대표, 여재성 비씨카드 대외협력실장, 조정건 대신증권 부장, 김경진 대명레저산업 팀장, 이명옥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부장, 송

해복 휴롬엘에스 대표, 박병헌 위닉스 이사, 장경태 동광제약 부사장, 맨 뒷줄 왼쪽부터 문기복 천재교육 부사장, 정수연 할리스에프앤비 대표, 이상원 국민은행 부행장, 심사위원장 김주호 교수, 고광우 케이이웃도어닷컴 주무, 이현주 하나은행 부행장, 구영준 넥센타이어 팀장, 민병관 중앙일보 상무, 송상훈 이코노미스트 대표. 오상민 기자

[집중진단] 말 뿐인 지진 대비... 공공시설도 미흡

<앵커멘트>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 6.5의 지진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하면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건물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어진 지 40년이 지난 서울의 한 중학교. 보수 공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진에 대비한 보강 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 학교 행정실장 :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사고 안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근의 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진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남부교육청 시설팀장 : "관내 학교가 백 10개 학교인데요. 한 해 내진 보강 예산이 두 개 학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후 정부는 내진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내진 보강 대상인 전국 초중고교 2만 백여 곳 가운데 지난해 보강이 이루어진 학교는 82곳에 불과합니다.

한 해 동안 내진 보강은 대상학교의 0.4% 가 증가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78.7%가 아직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진 발생 시 구조와 구급, 복구 등 후속 조치를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 시군구청 청사와 경찰서 건물 등 공공건물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은 16.4%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3월 충격적인 일본 대지진,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또 내진보강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기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력과 수력 발전소, 시군구청 청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내진 보강 대상입니다.

지진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일어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내진 보강 사업을 했지만 내진설계 시설물 비율은 1년 전보다 겨우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하용(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지정 공공시설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2월에 결정돼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층 이하 저층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계획은 지나친 규제라며 취소됐고,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진 설계 기준마저 관리 부처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중요 시설물인 발전소와 다목적댐의 내진 기준은 지진 규모 5.4에서 6.2 사이, 일반 도로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관(서울대 교수) : "시설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본을 참조 하고, 어떤 것은 미국을 참조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럽 것을 참조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별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한 뒤 내진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창 없는 벽, 불법 개조, 미로 구조... 9명 목숨 앗았다

부산 노래방 화재 사상자 34명 - 인명 피해 왜 컸나

손님 대피는 뒷전, 불 먼저 끄려다 신고 늦어져 작년 같은 건물서 불 - 노래방도 설비 불량 지적 받아

'뿔'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래방 내부는 아주 어둠이 됐다.

5일 오후 9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 노래방은 19번 룸에서 일련이 동아리 회원 9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김수연(29·이씨는 입구 쪽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은 안전장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봤다. 종업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사람을 대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림으로 돌아온 김씨는 일행에게 "불이 났으니 나가자"고 말했다. 재빨리 노래방 내부 복도로 나왔지만 실내는 이미 암흑전지였다. 복도에는 50여 명의 손님이 기침을 하면서 미로 같은 노래방 내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숨을 한 번 들이켜니 질식할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다.

일행들과 함께 휴대전화 불빛으로 앞을 밝혀내며 손으로 코를 막고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향했다. 다행히 입구가 보였다. 방금 다녀온 입구 쪽 화장실 덕분에 노래방 내부 구조를 파악해 눈 개 대피에 도움이 됐다. 김씨는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고 종업원들도 '대피하라'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사망 9명과 부상 25명 등 34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노래방 참사는 허술한 초기 대응에 미로 같은 내부구조가 화를 키웠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김씨의 증언대로 종업원들은 불이 났는데도 손님을 빨리 대피시키지 않았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노래방 주인 조모(26)씨와 종업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뒤늦게 119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초기대응이 지연되는 동안 21번과 24번 룸 사이 현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전장 방음재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6일 오전 들어가 본 노래방 화재현장은 외부와 완전 차단된 미로 같은 곳이었다. 인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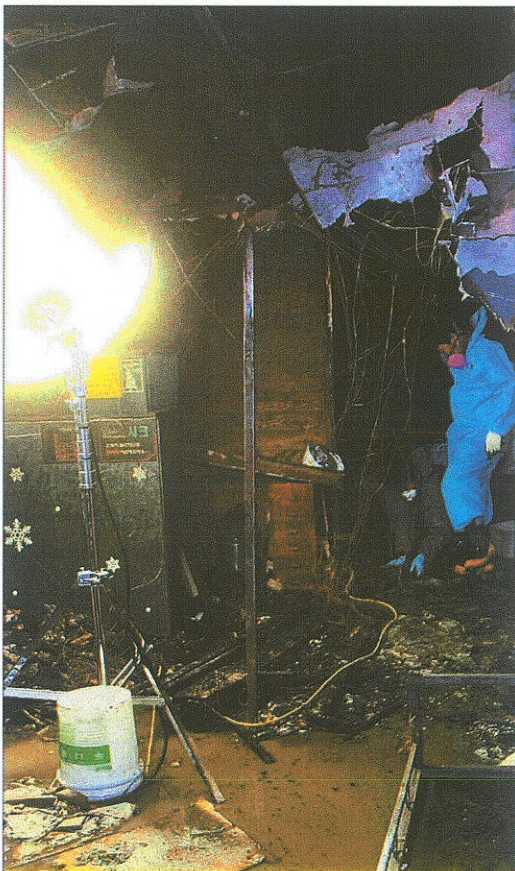
자가 없으면 대피로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6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이 노래방은 560㎡ 크기의 내부에 '미'자 형태 복도를 따라 26개의 방이 마주 보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확인 결과 이 방들은 예초에 허가받은 24개를 26개로 불법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부속실과 다용도실을 돌로 개조해 2개를 더 늘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나뭇 1.5m의 복도는 어른 두 사람이 마주치면 몸을 피해야 할 정도로 좁았다. 노래방을 둘러싼 유리창 26개는 두터운 합판으로 가린 채 완전히 밀폐돼 있었다. 이 때문에 화재 초기에는 작은 양의 연기가 외부로 새어나 오죽격자들이 큰 불이 난 줄도 몰랐을 정도였다.

6일 오전 1차 현장 감식을 한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인 계산대 뒤 24번 방과 21번 방 현장이 심하게 그을려 있는 점으로 미뤄 일단 전기누전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가 나오는 1주일 뒤쯤 발표될 예정이다.

화재가 난 노래방 건물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에도 노래방 아래층인 2층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건물에서 6개월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소방당국의 부실점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고가 난 날도 오후 5시쯤 지근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점검 등의 점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보완했다.

부산=김성진·김윤호 기자 daedan@joongang.co.kr

◆사망자 명단 ▶환진영(32) ▶제민정(23·4) ▶김지민(24) ▶서한결(2) ▶박승범(20) ▶김은경(25·여) ▶가인(28·스리랑카인) ▶제우호(26·스리랑카인) ▶틸란카(25·스리랑카인)



5일 부산시 부전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6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이 감식을 하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국내 주요 화재사고 및지(1990년 이후)	
1995년 8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경기여자기술학교 기숙사(사망 37명)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세랜드 청소년수련원유치원(사망 23명 사망)
10월 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 러브호텔(사망 52명·부상 56명)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역 방화(사망 51명·부상 138명·실종 59명)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사망 10명·부상 18명)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병동초등학교 화재(사망 40명·부상 10명)
2009년 1월 14일	부산시 영도구 상하노래방주점 화재(사망 8명·부상 1명)
11월 14일	부산시 중구 삼탄사거리연습장 화재(사망 10명·부상 7명)
2010년 11월 12일	경북 포항시 오량면 화재(사망 10명·부상 17명)

질식사 주요인 창 없는 밀폐업소 규제할 법이 없다

참사 못 막는 허술한 소방법

노래방과 같은 밀폐업소에서 난 불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가 1999년 10월 57명이 숨진 '인천 인현동 호텔' 사고다. 지하 노래방 공사현장에서 시작된 불이 2층 호텔프롭과 3층 당구장으로 번졌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고생과 대학생이었다. 이번엔 사고가 난 부산의 경우 2009년 1월 영도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졌다. 같은 해 11월 부산 국제시장 실내사격장 화재에선 일반인 관광객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피해를 막아 보려고 2006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특별법은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 가운데 영업 중 화재에 비례해 재단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했다. 학원·노래방·점점방고시원·비디오방·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 법엔 소화기 비치, 비상탈출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다. 또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점검기관이 내린 시설보안 명령을 안 지키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 법엔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안전시설 단속업무를 하는 한 소방 관계자는 "호텔프롭에서 내부 소음 차단을 위해 쓰는 통유리, 지하 노래방엔 창이 없는 것이 실제 화재 시 질식사자를 부르는 주원인"이라며 "정화 법엔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 소화 건축물(거실 면적 300㎡ 미만)의 경우 옥외 피난계단 설치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문제다. 화재 발생 시 발길을 대고 건물 밖으로 내리가는 완강시설만이 의무화돼 있다.

단속도 여의치 않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이 밀폐형인 노래방 업소만 전국에 4만여 개"라며 "비슷한 구조의 호텔프롭 등 유흥업소까지 따지면 그 수가 엄청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주들도 불만이다. 공간이 좁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 비상계단 등 안전설비 설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불발생 시설 개선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 업주자 세입자만 경우 건물 주인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많다고 한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김모(70)씨는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해 돈을 쓰기보다 차라리 단속을 걸려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업주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노진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한 톨 안 쓰고 가족 위해 일했는데... 노래방에서 겪은 코리안드림

회식하던 스리랑카 20대 셋 같은 회사 직원 셋과 함께 숨져

"한 톨이라도 더 벌려고 일제나 열심히 일했습디다. 모처럼 간 노래방이었는데..." 자동차부품 회사인 부산시 금사동 (현)구수정밀 운영대 관리이사는 침통해했다. 겨우 달문을 얻 그는 "사망자 가운데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3명은 돈 많이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코리아드림'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갔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숨진 스리랑카 근로자는 제우호(26)·틸란카(25)·가인(28) 등 3명. 제우호·틸란카는 2010년 7월 한국에 건너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구수정밀에 입사했다. 지난해 10월 일국한 가인(28)에게는 구수정밀이 첫 직장이다. 이들은 숨진 틸란카와 같은 스리랑카에서 2-3개월 기초한국어 교육을 받은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 기능공 밑에서 손질, 발질을 해가며 연봉 2000만 원 부를 줄 줄 구멍을 뚫는 등 생산보조 일



숨진 스리랑카 근로자 틸란카의 형 누누스카가 6일 정례회에서 눈물짓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을 하며 기술을 배웠다. 하루 8시간이 모자라 작업을 요청해 10시간씩 일할 때가 많았다. 토요일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휴근을 해곤했다. 사고가 난 날도 오후 5시쯤 지근거리 한 유한공업 동료 9명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전체 12명 가운데 한국인 6명만 목숨을 건졌다.

월급은 한 달 180여만원,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월급을 한 톨도 쓰지 않고 모두 모국의 가족에게 보낸다. 생활비는 연 500%인 보너스만으로 충당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100여m 떨어진 밤 4개짜리 기숙사에서 살았다. 방은 1-2평씩 나눠 사용했다. 아침 식사는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점심 저녁 식사는 주로 회사 식당에서 해결했다.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지만 이들은 '코리아드림'을 이루려 땀을 뻑뻑했다. 총퇴근을 함께했고, 지각·조퇴도 없었다. 성격이 쾌활해 한국인보다 잘 어울렸다는 게 동료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 회사 운영대 이사는 "사고 당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약속해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수정밀 근로자 160여 명 가운데 외국인 동료들은 한 슬금에 잡기 있다. 부산 금사동 일대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20여 명은 6일 오후 구수정밀에 다니다 숨진 틸란카의 시신이 안치된 계층배영원을 찾았다. 이들은 숨진 틸란카와 같은 스리랑카 하살라카 등 여러 지역 출신으로, 병원 장례식장에 모여 사고 경위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부산=황선운·위성욱 기자 suyehwa@joongang.co.kr

그레퍼=박준희 기자 pchoonh@joongang.co.kr

불난 방문 여는 순간 '역류 현상'에 불길 확

(Backdraft)

부산 시크노래방 화재
9명 사망, 25명 중경상

인제까지 이런 원시적 참사가 되풀이될까. 지난 5일 밤 부산 서면의 6층 짜리 N빌딩중 3층에 있는 시크노래주점에서 불이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고급스럽고 멋진 인테리어는 탈 때 더 많은 유독가스를 발생시켰지만 방독면 등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다.

이날 불이 나자 노래주점 주인 조모(25)씨는 종업원 이모(21)씨와 함께 24번 방문 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 문을 열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불이 번지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와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부산시소방본부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4번 방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공급돼 급속히 연소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같은 자체 초기 진화 실패로 인명 대피를 위한 상황전파가 지연됐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종의 '역류현상(Backdraft)'이라는 추정이다.

화재 신고는 조 사장이 자체 진화에 실패한 후인 이날 오후 8시52분쯤 이 업소 종업원 김모(23)씨가 했다. 김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해 밖으로 뛰어나가 휴대폰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비상벨이 울렸는지 여부

역류 현상(Backdraft)
차단된 공간에서 연소가 진행돼 산소가 희박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순식간에 화재가 커지는 현상. 이 경우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창문을 깨거나 문을 열어 산소가 들어가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변질 수 있다.

스리랑카 근로자 3명도 숨져
미로처럼 복잡한 실내 구조
고급 내장재 타며 유독가스
업주측 초기 진화 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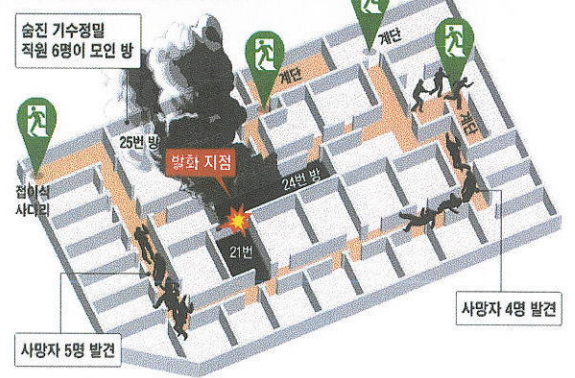
도 논란이다. 이 업소엔 26개 방에 각 1개씩과 복도 등 모두 29개의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다. 이중 노래하는 방 안에는 온도감지, 복도에는 연기감지 비상벨이 있었다. 이에 대해 19번 방에서 있었던 손님 김모(28)씨는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부산시소방본부 측은 "일부 손님들이 비상벨 소리를 들었고 이 건물 경비가 비상벨에 놀라 3층으로 뛰어 올라왔다고 하는 점으로 볼 때 벨이 정상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종업원들의 진술은 있었으나, 조사한 손님들로부터는 '비상벨이 울렸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8시 50분쯤 일어난 불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의 노래방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업소 측이 손님들에 대한 대피 유도나 안내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피 유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님 하모(39)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일행이 '불난 것 같다'고 해서 대피했다"며 "업소 측의 안내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님 중 '종업원으로부터 대피하라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노래주점은 559㎡ 규모에 26개의 노래방과 주방 등 27개 방으로 이뤄져 있다. 노래하는 방들은 'ㄱ'자 모양의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배치돼 있다. 외벽이 통유리로 돼 전체가 사실상 밀폐된 공간 형태를 하고 있다. 이 구조 탓에 출입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25번 방에서 노래를 불렀던 필름가(25)씨 등 스리랑카 근로자 3명을 포함한 부산 금정구 자동차부 품업체 기수정밀사의 직원 6명이 반대편으로 대피하다 유독가스에 모두 숨졌다. 이들은 회사일이 끝난 뒤 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단란주점 화재 현장 상황도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방음재인 스티로폼·우레탄 등이 타면서 엄청난 양의 유독 가스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소는 내부에 법정 소방시설을 대부분 갖췄다고 부산소방본부 측은 말했지만 정작 화재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방독면이 없는 등 현실적인 재난

방지 대책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불은 20여대의 소방차와 100여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 진화에 들어가 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0시쯤 완전히 꺼졌다.

부산=김학찬 기자 chani@chosun.com
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노래방 가스실'이었다

■ 부산 노래주점 화재 9명 질식사... 피해 키운 5가지

업주-종업원, 손님 팽개친 채 비상벨도 안울리고 먼저 대피

5일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 참사는 창문 없는 밀폐된 통유리 벽, 위급 상황 때 역할할 못한 비상구, 화재 초기 낙장 대처 등 복합적 인제(人災)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경찰은 불이 났을 때 업주와 종업원 대처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생존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 불법 개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 역할 못한 비상구와 미로형 내부

불이 난 노래주점은 'ㄱ'자형 복도를 따라 방 26개가 배치된 특이한 구조다. 다양한 상황에서 출입구를 찾으려다 이런 구조에 막혀 6, 7, 8번방 복도 근처에서 사망자 5명, 14, 15, 16번방 앞에서 사망자 4명이 발견됐다. 주 출입구 근처에 있는 21번과 24번방 벽 쪽에서 시작된 불길은 출입구 쪽으로 먼저 대피로도 막혔다.

막이 방을 처리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로 마감 처리됐다. 하지만 막상 불이 나자 불길보다 무서운 검은색 연기가 유독 가스를 뿜어 대며 내부를 삼켰다. 외벽을 창문 하나 없이 통유리로 만들고 안쪽 창은 석고보드로 덧댄 밀폐 구조여서 유독 가스가 내부만 뿜들어 급세 가스실로 변했다.

한 생존자는 "스마트폰 '손전등'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했지만 복도를 뒤덮은 검은 연기 때문에 1cm 앞도

1 역할 못한 출구 옆 비상구 출구 쪽서 발화 '덕통'

2 미로 같은 □형 통로 1곳만 막혀도 '막막'

3 창문 없는 통유리 외벽 방음용 유리 탈출 막아

4 검은 '막막' 방음재 스티로폼 불타며 '깜깜'

5 화 키운 업주의 초기 대응 119신고 않고 진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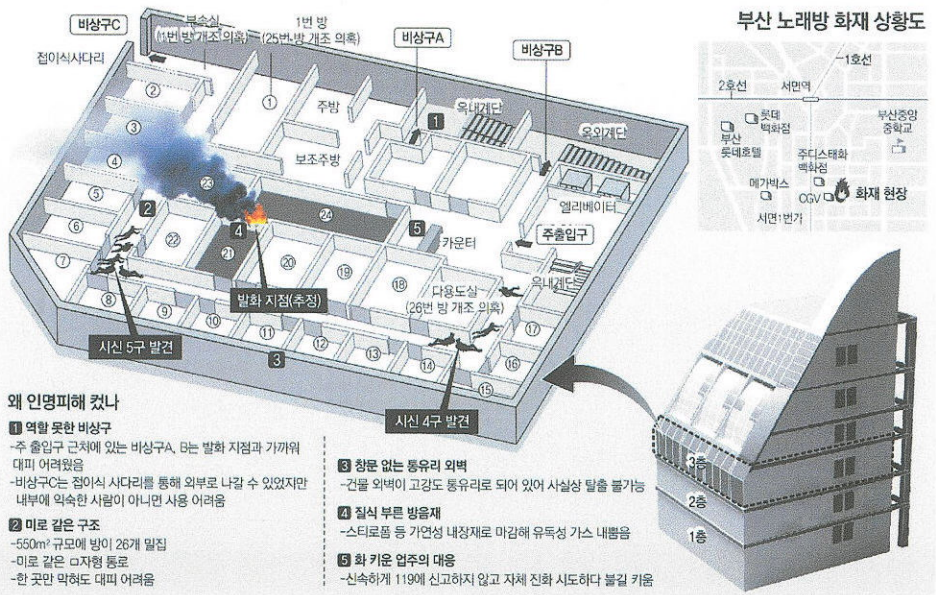
안 보았다"고 말했다.

● 내부 불법 개조 의혹 수사

부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노래주점은 2009년 개업 당시 방 24개를 갖췄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25번, 26번방이 있고 스티로폼 인이 포함된 12방은 25번방에 함께 있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비상구가 있는 부속실과 다용도실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지난해 11월에도 2층 노래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관할 소방서 소방점검에서 이 노래주점은 전기시설 불량으로 지적돼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사망자 9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했다.

부산=윤희라 기자 loro@donga.com
조용희 기자 silent@donga.com

● 내부 삼킨 방음재 검은 유독가스 방 26개가 있는 노래주점 벽은 칸



왜 인명피해 컸나

1 역할 못한 비상구

-주 출입구 근처에 있는 비상구A, B는 발화 지점과 가까워 대피 어려웠음
-비상구C는 접이식 사다리를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었지만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사용 어려움

2 미로 같은 구조

-550㎡ 규모에 방이 26개 밀집
-미로 같은 □형 통로
-한 곳만 막혀도 대피 어려움

3 창문 없는 통유리 외벽

-건물 외벽이 고강도 통유리로 되어 있어 사실상 탈출 불가능

4 질식 부른 방음재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로 마감해 유독성 가스 내뿜음

5 화 키운 업주의 대응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시도하다 불길 키움

東亞日報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A12면 사회

'화재경보'를 노래방 화면에 뜨게 하자

시끄럽고 어두워 볼만 나면 대형참사 비상구는 출구쪽 아닌 반대편 배치해야

노래방 화재는 인명 피해가 크다.

5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번에 9명의 목숨을 삼켰다. 25명은 불과 연기로 크게 다쳤다. 2009년 부산 영도구 S노래주점 화재에서는 사망자 15명, 2008년 대구 북구 A노래방 화재로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9명이 각각 발생했다. 내부 구조가 미로같이 복잡해 대피가 어려운 데다 방 안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화재 사실을 알기도 어렵다. 또 방음재 같은 자재가 타면서 내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피해도 크다. 노래방 화재 피해를 줄일 방안을 알아봤다.

● 제언1: 노래방 기기에 자동영상차단장치를 설치하자

올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문을 여는 노래방은 자동영상차단장치를 갖춰야 한다. 화재가 감지되면 노래방 화면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비상구로 대피하십시오이라는 영상이 자동으로 뜨도록 한 것이다. 노래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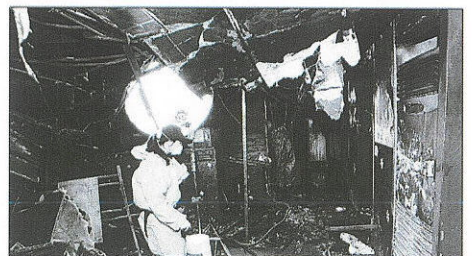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장치가 설치된 노래방은 많지 않다. 총면적 1000㎡ 이상인 업소만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이 난 부산 서면 S노래방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 제언2: 유도등 바닥에 설치하자

신속한 대피를 위해 건물의 복도 계단 통로에는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등을 설치한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윤용근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유도등이 올라오고 부엌에 연기가 한 상태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피하기 때문에 유도등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는 바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제언3: 비상구와 출입구를 각각 다른 쪽에 설치하라

이번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 화



'참극의 현장' 감시 5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에서 6일 오전 화재 감시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92@donga.com

재는 출입구와 비상구가 인접해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 경우다. 출입구로 화재가 번지면 비상구로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 거리가 건물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비상구를 하나 더 두도록 하고 있다.

● 제언4: 먼저 열기, 습기 제거를 습관화하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은 곳은

특성상 각종 전기시설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지하에 있어 내부가 어둡고 습해 누전 가능성이 높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8~201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노래방 및 유흥주점의 화재 288건 가운데 189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도소방본부는 노래방용 모니터링에 쌓인 먼지가 도체(導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우경민 기자 woohaha@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ky@donga.com

부산 노래주점 참사, 손님 대피만 먼저 시켰어도...

입구 불... 자체 진화 실패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 탓
대피 못한 9명 질식 사망

작년 10월에도 화재 사고
건물 불법개조 여부 조사중

어린이날의 참변으로 기록될 부산 노래주점 화재참사는 인화유독성이 강한 인테리어 자재와 미로 같은 내부구조, 업소 측의 미숙한 화재대응 등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모든 위험요인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노래주점 화재마다 대형인명피해를 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특단의 화재 예방 및 안전·대피 대책을 범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노래주점 화재 상황도



- 다중이용업소 화재 참사 일지**
- 2004.1.12 경기 수원시 고시텔 4명 사망, 4명 부상
 - 2008.7.19 서울 송파구 고시텔 8명 사망, 10명 부상
 - 2008.7.25 경기 용인시 고시텔 7명 사망, 10명 부상
 - 2009.1.14 부산 영도구 노래주점 9명 사망
 - 2009.11.14 부산 중구 실내사격장 15명 사망, 1명 부상
 - 2012.5.5 부산 부산진구 노래주점 9명 사망, 25명 부상



경찰과 소방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현장을 찾아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정밀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화재 원인 못 찾아

5일 오후 8시52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6층짜리 건물의 3층 S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김지원(24)씨 등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사망자들은 모두 유독성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화재 당시 노래주점에는 손님 30여명과 업소주인 종업원 5명 4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화 지점은 카운터에 가까운 룸(상황도 24번 또는 21번 방)으로 화재 당시 손님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소방본부와 국과수, 전기공사 등과 현장감식을 나선 경찰 관계자는 "폭발로 추정되는 진술이나 증거는 없는 상태"라며 "합동감식반의 현장감식 결과를 통해 정확한 화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누전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왜 대형 참사로 이어졌나

600여㎡ 규모의 이 노래주점은 각

각 독립된 노래방 26개와 주방 및 보조주방, 남녀 화장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출입구와 3개의 비상구 등 모두 4곳의 탈출구가 있으나 화재는 공교롭게도 카운터가 있는 노래방 출입구 쪽 룸에서 시작됐다.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업주와 종업원 2명이 진화에 나섰다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 유독성 연기는 삼시간에

내부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 별도로 종업원 3명이 더 있었지만 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대피를 요청하는 업소 측의 상황 전파가 지연돼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음주상태의 손님들은 탈출구를 찾았지만 자욱한 연기 탓에 우왕좌왕하다 질식사 쓰러지기 일쑤였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카운터 쪽 룸에서 나 출입

구가 차단되는 바람에 손님들이 더 당황했고 비상구로 유도하는 업소 측의 대피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부속실과 화장실에 인접한 비상구 3곳은 처음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찾아가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통로 구조여서 '미로에 갇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노래주점의 건물 외

벽이 통유리로 돼 있어 손님들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도 불가능했다. 벽과 천장이 허물어진 틈새에는 방음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이 드러나 있어 유독성 가스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주점이 도면상으로는 24개의 룸으로 구성돼 있지만 26개의 룸이 있었다는 종업원의 진술이 있어 불법개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가수정밀 근로자 6명이 있던 룸(상황도 25번 방)이 부속실의 비상구와 가까운 위치인데도 이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부속실의 불법개조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래주점 규모가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주점 건물에선 지난해 10월에도 화재가 발생, 손님들이 대피소동을 벌였던 적이 있지만 여전히 화재대응에 취약했던 것이다.

노래주점 사고, 왜 재발하나

부산에선 3년 전인 2009년 1월 영도구 지하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 9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허술한 화재 예방 및 안전조치로 볼 때 전혀 교훈이 되지 않았다. 각종 소방시설들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도 공동적으로 나타났다.

박재성 한국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위험이 큰 다중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화재 감지기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영상-음향 장치를 멈추게 한 뒤 자막을 통해 화재를 즉각 알려 대피시키는 시스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복심균기자 sgmok@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불 났는데도 대피안내 안 한 업주... 제구실 못한 비상구...

부산 노래주점 화재 인명피해 왜 컸나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 노래주점 화재 현장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노래주점 내부 벽면과 천장 등이 온전한 데가 한 곳도 없어 처참하게 불타 52명의 이용객 중 43명이 구조된 게 다행이라 여겨질 정도였다.

▶참혹한 화재현장

시크 노래주점이 입주한 6층짜리 상업용 건물 3층에 들어서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화염이 얼마나 강했는지 천장과 벽면을 덮고 있던 방음재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전기 출과 통신선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인화성이 강한 소파와 천장을 통해 불이 순식간에 3층 26개 룸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24개의 룸만 설치됐는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2개를 늘린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 소방관은 “화재위험이 큰 주점 등은 방화·방염 재질 사용이 필수인데도 업주들이 초기 시설투자가 많이 둔다는 이유로 소출하고 있다”며 “매년 전국에서 되풀이되는 대형 화재들 막으려면 노래주점과 나이트클럽, 숙박업소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내화성이 뛰어난 방음재와 벽지, 바닥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왜 컸나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참사의 원인은 업주 조무공(26세)과 종업원 1명이 비상벨을 누르고 긴급방송을 하지 않은 채 자체 초기 진화를 시도한 데 있다. 노래방 전체 불이

가 불과 500여m에 불과해 긴급방송을 하면 별다른 지장이 주출입구 쪽이라 해도 10여 초 안에 입장 내 모든 손님이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9 신고는 화장실에 갔던 또 다른 종업원이 화장실을 나왔다 심한 연기를 보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주점은 룸 26개가 중앙에 있는 계산대, 다용도실 등을 두고 벽 쪽으로 위치. 통로가 마치 ‘ㄱ’ 모양의 미로처럼 나 있다. 소방당국이 추정된 발화지점은 출입구 앞쪽 계산대 바로 옆방인 24번 룸이었다. 이 때문에 연기가 통로를 채우면서 안쪽 방의 손님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9명 중 5명은 가장 구석방인 5, 6, 7, 8번 방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3명은 출입구와 다소 가까운 다용도실과 14, 16번 룸 앞 복도에 있었다. 1명은 주출입구에서 불과 7~8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비상구 제 역할 못해

노래주점에는 3개의 비상구가 있었지만, 어느 화재 발생 현장과 마찬가지로 급박한 상황에서 모두 제 구실을 못했다. 옥내계단과 옥외계단으로 통하는 2개의 비상구는 모두 불이 난 주출입구 쪽 24번 방 앞 화장실 양쪽에 시설돼 주점 안쪽 방에 있던 사람들이 24번 방과 방 앞 복도의 상난 불길을 헤치고 도달할 수 없었다.

주점 안쪽에 있는 비상구도 도음이 못됐다. 건물 외벽의 열악한 열악시 사다리라 통하는

자체 초기진화 시도하려다 실패 뒤늦게 신고

방염제품 사용 안해 불 순식간에 전체로 번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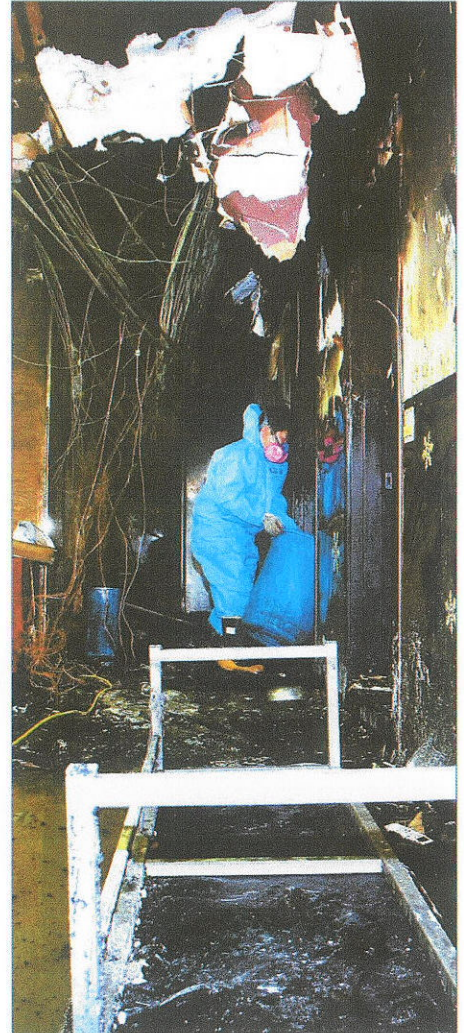
비상구로 1번 방과 2번 방 사이에 있었지만, 이 역시 비상구를 열고 옹도를 알 수 없는 부속실을 지나 외벽 창으로 통하는 구조라 평소 눈여겨보지 않거나 주점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용하기 힘들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부산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오규성 팀장은 “화재 현장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가득 차고 화염이 거세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의 진입조차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영업주 조씨 등을 상대로

대피유도 등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사망자 명단

- ▲자야 수리아(25·스리랑카·인제대백병원)
- ▲가인(27·충해병원)
- ▲제모누(26·가신의료원)
- ▲서한결(21·인제대백병원)
- ▲김기원(24·온종합병원)
- ▲임진영(31·부산신대병원)
- ▲재민정(23·여·)
- ▲박승현(19·동아대병원)
- ▲김은정(25·여·)



5일 오후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주점에서 심동감시원이 처참하게 불에 탄 화재현장을 관찰하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세계일보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001면 종합

미로 같은 노래주점... 9명 화재참사

부산서... 부상자 25명

출구 못 찾아 연기 질식

부산 도심 한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3명 등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9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8시52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디스태화백화점 뒤편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시크노레타운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손님 제모누(26)씨 등 스리랑카인 3명과 김기원(24)씨 등 한국인 6명이 숨졌다. 이들은 출입구 쪽 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

정된다.

특히 노래주점 업주 조무공(26)씨와 종업원 1명이 비상벨을 누르지 않은 채 불을 끄려다 실패한 뒤 불이 급속히 번지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다.

경찰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핑’ 하는 소리와 함께 24번 룸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노래주점 종업원 김건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세계일보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009면 사회

火魔에 직원 6명 한꺼번에 잃은 ‘기수정밀’ 침통

“돈벌어 고향 가겠다더니... 우째 이런 일이”

새내기·스리랑카 근로자 등

휴일 노래주점 찾았다가 참변

“돈 많이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노래주점 화재로 직원 6명이 숨진 부산 금사동 기수정밀은 6일 침통한 표정이었다.

이 회사는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김

지원(24)씨를 포함한 내국인 근로자 3명과 가인(28)씨 등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 소식을 듣고 회사로 모여든 직원들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다.

김씨 등 숨진 한국인 직원 3명은 기수사에서 생활하는 스리랑카 산업연수생 3명과 함께 휴일을 보내기 위해 노래주점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김씨를 포함한 한국인 근로자 3명은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로 입사 1~2년차의 새내기들이다.

가인씨 등 스리랑카인 3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입사한 후 기수사에서 생활하면서 생산 보조로 성실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운영팀 관리이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너무 순박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다”며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일이 휴일이어서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서로 약속해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희생자들은 회사에서 마련한 모임이 아닌 개별적으로 만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회사 차원의 피해보상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수정밀은 170여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불길에 막힌 비상구...스프링클러는 없었다

'부산 노래주점 화재' 9명 사망



지난 5일 밤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디스테이백화점 근처 노래주점의 화재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6일 전기안전공사 직원 등이 감식을 하고 있다. 천장이 폭격을 맞은 듯이 내려앉았다.

종업원들 소화기 초기진화 실패...인명피해 키워 지난 12월에도 2층서 불...걸잡기 소방점검 '도마'

지난 5일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진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의 노래주점에는 유독가스와 불길이 빠져나갈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다섯달 전에 이 노래주점의 아래층에서 비슷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져 당시 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화재 당시 노래주점이 있는 L빌딩 3~6층에 있던 52명 가운데 노래주점에 서만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3명 등 부산 금사동의 자동차부품업체 7사 직원 6명을 포함해 모두 9명(여성 2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해 1~10월 7사에 입사해 기숙사에서 지내던 스리랑카 노동자 3명은 토요일을 맞아 한국인 직원 등 9명과 함께 노래주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 창문 하나 없는 노래주점 5일 밤 8시52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디스테이백화점 근처 L빌딩 3층 노래주점 26개의 방 가운데 손님이 없던 24번 방과 21번 방에서 불이 나, 두 방 사이에 설치한 방음벽을 태우면서 나온 유독가스가 3층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다. 이 노래주점은 사방으로 강

화유리가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유독가스는 밖으로 전혀 빠져나가지 못했다. 당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도 강화유리를 깨고 3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릴 수 없었다.

■ 스프링클러 없어 노래주점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9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 하나들 쓰러져갈 동안, 불이 나면 천장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노래주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있다. 2010년 11월부터는 지하건물이나, 노래주점처럼 창문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지상건물에 노래주점이 들어서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노래주점은 2009년 1월에 영업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10년 11월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노래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들도 일정한 기간

을 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명무실한 비상구 노래주점에는 비상구가 세 개 있었지만, 출입구 근처 화장실 좌우에 두 개가 있었고 나머지도 건물 맨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손님들이 가장 가까운 곳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만든 것인데, 철축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불길과 유독가스가 출입구 쪽으로 옮겨가자 손님들이 비상구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허술한 점검 소방서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노래주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2층의 노래주점에서 불이 난데다 지난해 8월 관할 소방서가 별인 소방점검에서도 노래주점이 전기시설 불량 지적을 받아 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화재 당시 노래주점의 비상구 문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노래주점이 불법으로 시설을 변경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노래주점 맨 안쪽 구석의 비상구 근처 방에서 노래를 불렀던 12명 가운데 5명이 22번 방 앞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노래주점이 2009년 1월에 영업허가를 받을 때 24개였던 방이 현재 26개로 늘어나 있기 때문이다. 소방서 측은 불이 났을 당시 노래주점은 업주 조아무개(26세)와 종업원 이아무개(21세) 등 5명까지 6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끄지 못한 것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았다.

윤희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로 꾸러진 합동감식반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화재 원인과 인명 피해가 많이 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소방본부는 헬기 2대와 소방차 등 58대를 출동시켜 밤 10시2분께 불을 완전히 꺼냈다. 이 불로 노래주점 3층 559㎡가 모두 불에 타 8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 9명 사망·25명 부상

미로형 구조에 출입구서 불, 피해 컸다

부산 도심의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희생자들은 스리랑카인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20대 초반이다.

■ 순식간에 퍼진 유독가스

지난 5일 오후 8시52분쯤 부산 부전동 서면 학원거리의 6층짜리 건물 3층 시크노래타운에서 화재가 발생, 노래주점 손님 함진영씨(31) 등 9명이 숨졌다. 부상자 25명 중에는 이모씨(33)가 중상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노래주점에는 사망자들 외에 손님과 종업원 등 모두 26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다.

희생자들은 인화성 물질이 내뿜는 유독가스가 노래주점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석봉구 강력계장은 "사망자들이 순식간에 변진 연기와 유독가스 등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고를 조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6일 화재현장에 대한 중간 감식 결과 "노래주점 26개의 방 가운데 24번 방과 21번 방 사이의 벽에서 첫 발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4번과 21번 방을 제외한 다른 방이나 통로에는 불탄 흔적이 없다"며 "정확한 발화원인은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나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 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가스 폭발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제 역할 못한 비상구

희생자가 많은 것은 우선 불이 출입구 쪽에서 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은 출입구와 계산대 바로 옆의 24번·21번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출입구 쪽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피로가 차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망자 중 5명은 가장 구석 방인 6·7번 방 앞에서, 4명은 출입구 주변 14·16·17번 방 앞에서 발견됐다.

600여㎡ 규모로 주방 등 모두 26개 방이 있는 노래주점의 통로가 '口'자형의 미로 구조인 것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비상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비상구가 3개 있었으나 2개는 출입구 주변에 위치해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건물 외벽의 접이식 사

대피로 차단 순식간에 질식 강화 통유리창도 탈출 방해 업주 안일한 대처 희생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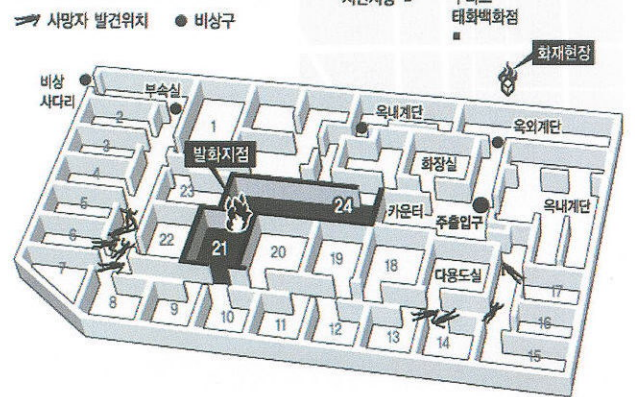
다리와 통하는 비상구는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비상구 존재 자체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창문이 강화 통유리여서 피해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부산시소방본부는 "업주와 종업원이 불을 끄려다 실패하면서 화재 발생 사실 전파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주가 실내 시설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서에 제출된 노래주점 평면도에는 가수정밀 직원들이 노래를 부른 곳으로 추정되는 25번 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면도상에는 25번 방의 위치가 1번 방이 있는 곳이다.

사망자 명단=김은경(25·여) 제민정(22·여) 김지원(24) 서한결(21) 박성범(19) 함진영, 가얀(28) 제모누(26) 필랑가(25)

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 현장



코리안 드림도 젊은 꿈도

차부품 생산 중기 노동자들 스리랑카인 3명 등 6명 희생

부산 노래방 화재사고로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만 6명의 미혼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부산 금정구 금사동의 (주)기수정밀은 사고 소식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희생자 중에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스리랑카인 3명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어린이날 휴일을 맞아 스리랑카인 노동자 3명 등 모두 12명이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6명은 화재 발생 직후 출입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오거나 옥상으로 올라가 화를 면했다.

박성범군(19) 등 숨진 직원 6명은 모두 19~28세 미혼의 젊은 나이였다. 박군 등 한국인 직원 3명은 1~2년차 새내기들이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도 스스럼없이 잘 어울려 이날도 외국인 7명 가운데 기사사 생활을 하는 3명과 부산 서면 나들이를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 역시 모두 미혼으로 제모누(26)와 필랑가(25)는 지난해 1월, 가얀(28)은 지난해 10월 입사해 현장에서 생산 보조

일을 해왔다. 이들은 일거리가 많을 때는 야근이나 특별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균 180만~190만원의 월급은 대부분 스리랑카의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희생자들은 산업재해가 적용되는 회사 모임이 아닌 개별적 만남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보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래방 영업주 조모씨는 월 17만원을 납부하는 화재보험에, 건물주는 월 100만원을 내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손영태 기수정밀 관리이사는 "한국인 노동자든 외국인 노동자든 모두 열심히 일하고 착실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애들이 주말을 함께 보내려고 서로 약속해서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수정밀은 직원 170여명의 업체로 지난 4일 부산시로부터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유망 중소기업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젊은이 거리의 부전동 학원거리 일대는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사고가 난 노래방 건물도 지난해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부산진구는 이날 사고대책본부와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부산 | 김정훈·권기정 기자
jhkim@kyunghyang.com

노래실 26개 '미로 방불'... 비상구 못찾아 피해 커져

부전동 화재 원인·인명 피해 상황

종업원 초기대응 부실... 유독가스 삼시각에 실내로 퍼져 3개 비상구 무용지물... 소방당국 초동 대처도 도마위에

5일 밤 발생한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는 34명의 사상자를 냈다. 종업원의 초기대응 부실과 미로같은 비좁은 복도를 손님들이 채 빠져나가기 전에 유독연기가 삼시각에 실내로 퍼지면서 질식사해 피해가 컸다. 소방 당국의 대처도 신속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복잡한 구조와 초기 대응 미흡=목적자 진술과 합동감식반이 6일 실시한 1차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 등이 화재원인으로 추정됐다. 발화지점은 비었던 21번과 24번 노래실이 맞붙은 벽쪽으로 조사됐다. 합동감식반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합동감식반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이 노래주점은 600여㎡에 노래실 26개가 계산돼. 다용도실 등을 중앙에 두고 벽 쪽으로 배치됐다. 주점 측은 1번 노래실과 다용도실을 나눠 노래실 2개를 무단으로 더 설치했다는 것이다. 통로는 마치 'ㅁ'자 모양의 미로처럼 나 있다. 따라서 연기가 통로를 채우면서 안쪽 노래실의 손님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재 등이 타면서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불길보다는 이 연기가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

특히 불이 나자 영업주 조모(26)씨와 종업원 4명은 영업 중인 5개 노래실의 손님들을 우선 대피시키지 않고 자체 진화를 벌였던 것으로 소방당국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119 신고는 화장실에 있던 또 다른 종업원이 화장실

을 나오다 연기를 보고 그때 신고했다는 것이다. 초기 손님대피를 위한 상황전파가 지연되면서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비상탈출이 어려운 실내구조=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노래주점에는 옥내계단과 옥외계단으로 통하는 3개의 비상구가 있었지만, 손님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이한 건물 구조 때문인지 비상구들이 주 출입구 반대편이 아닌 주 출입구 주변에 있어 손님들의 탈출을 돕지 못했다.

건물 외벽의 접이식 사다리과 통하는 비상구는 1번과 2번 노래실 사이에 있었다. 이 역시 비상구를 열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부속실을 지나 외벽 정으로 통하는 구조라 주점 내부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들었다.

주점 위치가 3층이어서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주점 외벽이 건물 미관과 방음을 고려한 고강도 통유리로 시설했다.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방 당국이 외벽 유리를 깨고 적극적인 현장진입 및 구조작업을 시도했다면 희생자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당국의 안전한 초동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목격자들은 "화재 신고를 받고 최초 소방차 7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호스를 퍼뜨려 시간이 지체됐다"며 "한참 지나서야 소방대원들이 좁은 출입구를 통해 3층 화재 현장으로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화재 발생 40분이 넘어서야 밖으로 실려 나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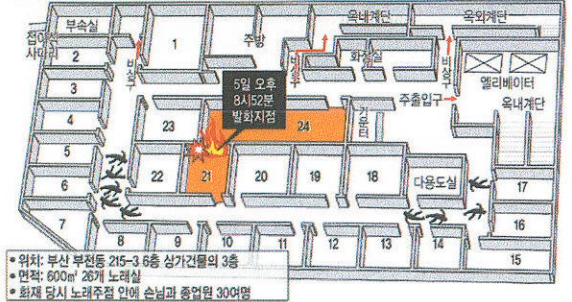
부산=윤복희 기자 bhyoon@kmb.co.kr



참사 현장 어린이날인 5일 밤 부산 부전동에 있는 노래주점인 시크노레타운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 소방당국 등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노란색 폴리스라인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3월	춘천 운교동	일가족 3명 질식사·부상
2011년 12월	전주 중앙동	2명 사망, 3명 부상
7월	경기 이천 창천동	1명 중상
2009년 1월	부산 남항동	8명 사망
2008년 9월	서울 북창동	1명 사망
2007년 12월	광주 금호동	2명 사망, 1명 부상
2006년 7월	전남 여수 여서동	4명 사망, 8명 부상

불이 난 노래주점 평면도 및 사망자 위치



3층 노래주점 불, 9명 사망 통유리 외벽에 탈출 못했다

부산서... 25명은 부상

어린이날 부산 도심의 대형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부산 부전동 6층 건물의 3층에 있는 시크노래타운에서 5일 오후 8시 52분 불이 나 손님 김지원(24)씨 등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가안(38)씨 등 스리랑카인 3명이 포함됐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춘해병원, 백병원, 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의료원 등 시내 6개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가운데 이모(33)씨 등 4명은 6일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합동감식반과 중입원 김모(23)군 등에 따르면 노래방은 600여㎡ 규모에 26개 노래실로 이뤄져 있으며, 불은 노래주점 중앙 손님이 없던 21번과 24번 실이 마주 닿은 벽쪽에서 시작됐다. 정전과 함께 유독 연기가 순식간에 실내 전체로 퍼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손님들이 출입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컸다. 통유리 외벽도 탈출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불이 난 이 빌딩은 지난해 11월 23일에도 2층 한 노래방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으나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화재 예방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래주점이 위치한 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사상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들이었다. 특히 사망자들 중에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3명 등 부산 금사동 모 회사 직원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회식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부산소방본부는 20여대의 소방차와 100여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쯤 진화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전기공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이날 1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원인을 '전기적 요인' 등으로 추정했다.

△사망자=함진병(31·부산대병원), 제민정(22·여·부산대병원), 김지원(24·은종합병원), 서한결(21·백병원), 박성범(19·동아대병원), 김은경(25·여·동아대병원), 가안(26·스리랑카인·고신의료원), 필랑가(25·스리랑카인·백병원)

▶▶관련기사 6면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안타까운 사연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로 숨진 사람들 중에는 한 회사 직원 6명이 회식을 하다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부산 금사동 모 회사 직원들은 스리랑카인 3명을 포함한 근로자 6명

직원 6명을 한꺼번에 화마로 잃어... 부품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침통

을 한꺼번에 잃어 망연자실했다. 직원들은 6일 사고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냐”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회사 근로자 6명은 이날 휴일인데도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출근해 오후 5시 근무를 마쳤다. 이들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여성 4명이 포함된 지인 6명을 추가로 불러 모두 12명이 이 노래주점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갔던 김지원(24)씨 등 근로자 3명과 가안

(28)씨 등 스리랑카인 근로자 3명, 여성 2명 등 8명은 빠져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김씨 등 한국인 근로자 3명은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로 입사 1~2년차 새내기들이다. 또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안씨 등 스리랑카인 3명은 지

난해 8월과 9월 입사, 생산 보조로 성실히 일해 왔다.

희생자 중 가장 어린 박성범(20)씨의 누나(25)는 “동생이 퇴근한 후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간 후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며 애통했다. 그녀는 또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오늘 새벽 3시쯤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다”며 “경찰이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해놓고도 유족에게는 연락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회사 운영대 관리이사는 “숨진 근로자들 모두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일해 왔다”며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스리랑카인 3명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고향에 송금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등 한 가족처럼 지내왔다”며 “모든 직원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휴일인 6일 모두 출근해 피해상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 측은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직원들을 배치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절차 등을 돕도록 했다. 또 사고소식을 접한 스리랑카 영사관 직원들은 이날 춘해병원과 고신의료원, 백병원 등을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회사는 미션 등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종업원 70여명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가 주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부산=윤봉학 조원일 기자

안이한 대처·형식적 소방점검... ‘안전불감증’ 여전

다중이용업소, 고질적 참사 되풀이

부산 부전동에서 5일 밤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참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화재참사 때마다 문제가 된 종업원들의 안이한 초기대처와 밀폐된 내부구조, 부실한 소방시설 관리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상당수 노래주점들은 영세한 사업장 규모를 핑계로 화재발생에 대비한 조명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고 있다. 소방당국의 안전점검 부실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이번에 불이 난 부산의 노래주점이 있는 6층짜리 건물 역시 지난해 8월 소방점검 때 전원장치 불량이라 적발돼 보완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낡은 전기장치의 교체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음재가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

았다. 2009년 1월 부산 영도 남항동 지하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졌을 때도 유독가스가 빠져지 않아 화를 키웠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의 부실관리도 ‘판박이’처럼 빼달았다.

2008년 1월 2명이 질식사한 대구 북현동 노래주점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 종업원들의 초기 진화작업 실패도 이번 화재에서 반복됐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1990~2010년 이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10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화재참사가 해마다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총 8건, 2000년대 들어서는 12건으로 화재참사가 해를 거르지 않고 발생했다. 화재장소도 점점방, 산후조리원, 사적장, 오락실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조명이 어둡고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노래주점의 경우 복잡한 내부구조 등으로 단시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고질적 원인과 결과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다. 노래주점에 오기 전 회식 등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지 못해 대피가 늦은 점, 어두컴컴한 조명 속에 폭 1m도 되지 않는 출구를 찾기 힘든 점 등이 원인이다. 이런 화재원인들은 분명한데 유사한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건물주와 업주, 소방당국이 화재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기한 소방방재청장은 6일 “대형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업주 등이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이 났을 경우 초기에 진압이 가능한 소방기구 작동법도 평소 익혀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지난 5일 밤 8시52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화재는 노래방의 복잡한 내부 구조가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전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정밀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또 노래방 참사... 구멍 뚫린 소방 안전

부산서 9명 사망...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급적용” 여론

해마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인해 소방법 등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래방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09년에는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8명이 사망했고, 2010년 광주 유흥주점 화재는 3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2011년에는 대구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 5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 3층 S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 손님 등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래방 불 나면 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나?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 중 대표주자이다. 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뜻한다.

즉 업종 자체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화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등이 노래방에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

은 정반대이다.

이번에 발생한 부산 노래방 화재 사건의 경우, 노래방 내에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노래방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면적이 150㎡ 이상 되는 노래방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2009년에 개정됐기 때문이다.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법을 소급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노래방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관계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왜 소급적용 시키지 못하나

소방방재청 등 관계 당국은 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법을 소급 적용시켜 행정지도를 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발전기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다.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이같은 큰 돈을 사용하기 꺼리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

부산 노래주점 불 9명 사망·25명 부상

미로같은 통로 비상구 있으나마나

다중이용시설 화재 참사 ㉔

지난 5일 저녁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정부의 법령으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화재 사고에서 9명이나 사망하고 25명이나 부상한 것은 미로처럼 돼 있는 노래주점 내부 구조 문제다. 종업원들이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가 2010년 1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발생한 노래주점은 스프링클러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미흡한 법령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내부 불법 개조 가능성 수사

5일 오후 8시 52분께 불이 난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은 6층짜리 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다. 600여 ㎡ 규모에 방 26개가 중앙에 계산대와 다용도실 등을 두고 벽쪽으로 위치해 통로가 마치 'ㄱ' 모양 미로처럼 돼 있다. 노래주점의 복잡한 내부 구조가 피해를 더 키운 것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추정한 발화 지점은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계산대 바로 옆방인 24번 방과 21번 방 사이 벽이다. 이 때문에 방에서 치솟은 불길과 연기로 출입구가 차단됐고, 안쪽 방에서 대피하려던 손님들이 노래주점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큰 인명 피해를 낸 또 다른 원인은 종업원들이 불을 발견한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에 나섰다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이 나자 영업주 조 모씨(26)와 종업원 이 모씨(21)는 손님을 우선 대피시키지 않고 자체 진화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소방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119 신고는 화장실에 갔던 또 다른 종업원이 화장실을 나오다가 연기를 보고 그때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초기 손님 대피를 위한 상황 전파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또 노래주점에 비상구가 3개 있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모두 제구

실을 못했다. 옥내계단과 옥외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2개 있지만 불길이 치솟은 주출입구 주변에 위치해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의 탈출을 돕지 못했다.

주점 안쪽에 있는 비상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건물 외벽에 있는 접이식 사다리와 통하는 비상구가 1번 방과 2번 방 사이에 있었지만 이 역시 비상구를 열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부속실을 지나 외벽 창으로 통하는 구조라 주점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었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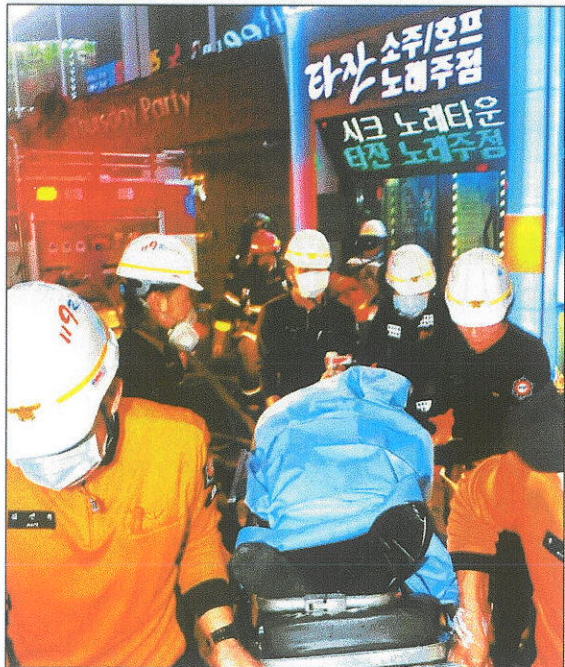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인 기수정밀 직원 6명이 회식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 중에는 가연 씨(28) 등 스키링 카인 근로자도 포함돼 있다. 한국인 근로자 3명은 현장 근로자로 입사 1~2년차 새내기들이며, 스키링 카인 3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입사해 생산보조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주점이 위치한 서면은 부산 지역 최대 변화가 중 한 곳으로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 사상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이였다.

경찰은 이 노래주점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가 당시 평면도에는 노래방기가 있는 방은 24개로 나타났지만, 목격자 중에서 "당시 25번 방에서 놀았다"는 진술이 나와 다용도실과 가장 큰 방인 1번 방을 쪼개 최소 26개 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정부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염려되는 곳으로 단란주점, 노래방, 실내사격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중이용업소에는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령을 마련해 2010년 11월



지난 5일 화재로 9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 현장에서 구조된 한 성인이 실려가고 있다. <사진 제공=국채신문>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특별법이 2010년 11월 이후에 새로 문을 여는 다중이용업소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S노래주점의 경우 건물이 완공된 2003년 당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았다.

최영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들다 보니 업주들 반발이 심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리로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박동민·우성덕 기자

용인 에버랜드서 화재 관람객 200여명 대피

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람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급급 진화됐지만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찾았던 많은 관람객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용인소방서는 6일 오후 2시 28분께 용인 삼성 에버랜드 지구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17대를 출동시켜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지흥구·서동철 기자

“예방책 마련” 2년만에 부산서 또 대형 화재

부전동 노래주점서 9명 숨져
작년 전원불량 지적받은 곳
“제대로 점검하나” 비판 고조

부산 주점에서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에선 2009년 영도의 지하노래방과 국제시장 사격장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일어나 인명이 대거 희생된 적 있다. 화재 때마다 관계당국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후진국형 안전불감증 인명 사고가 되풀이됐다. 화재예방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8시52분께 부산의 최대 번화가인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S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사망자는 모두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부산의 자동차부품회사인 기수정밀 소속 스리랑카인 가안 씨(28) 등 외국인도 3명 있다. 부상자 25명 중 이모씨(33)는 중상이다. 나머지 24명은 경상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자들과 경찰에 따르면 불은 노래방 입구 쪽 손님이 없던 24번 방에서 시작됐다. 인명피해가 컸던 것은 발화지점이 출입구 쪽인데다 종업원들의 초기 진화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불이 나자 영업주 조모씨(26)와 종업원 1명은 손님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은 채 자체 진화를 벌였던 것으로 소방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119 신고는 화장실에 갔던 또 다른 종업원이 연기를 보고 나서야 신고했다.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은 600여㎡ 규모로 계산돼, 다용도실 등을 가운데 두고 ‘H’ 모양의 통로 벽쪽으로 방 28개가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연기는 바로 통로를 채웠고 안쪽방의 손님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

부산소방본부는 20여대의 소방차와 100여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해 화재 발생 1



119 구조대원들이 5일 오후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후송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시간여 만인 오후 10시께 진화를 끝냈다. 경찰은 갑자기 ‘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가스폭발 여부 등 화원을 파악 중이다.

참사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해 8월에도 소방 점검에서 전원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부산에서는 2009년 1월 영도의 한 지하노래방에서 화재가 일어나 8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1월에도 국제시장 내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다중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화재현장에서 만난 신용철 씨(52·회사원)는 “정부당국과 부산시소방본부는 당시 화재취약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지만 또다시 대형사고가 터졌다”며 “관계당국이 제대로 사전소방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부산=김태현기자 hyun@hankyung.com

외국인 3명 등 직원 6명 잃은 기수정밀 “어떻게 이런 일이...”

노래주점 화재로 근로자 6명을 한꺼번에 잃은 부산 금사동 기수정밀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침통해했다.

이 회사는 부산 부전동 S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명단에 소속 근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6일 새벽 간부들이 전원 출근해 상황파악에 분주했다.

이 회사 근로자들과 친구 등 일행 10여명은 휴일인 어린이날을 맞아 노래주점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김지원 씨(24) 등 근로자 3명과 가안 씨(28) 등 스리랑카인 외국인 근로자 3명 등 모두 6명이 화마에 숨졌다. 김 씨 등 한국인 근로자 3명은 현장 근로자들로 입사 1~2년차 새내기이다. 가안 씨 등 스리랑카인 3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입사해 생산 보조업무를 맡아왔다. 손영태 기수정

밀 관리이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순박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다”며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프고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수정밀은 자동차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들은 170여명이다. 지난 4일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에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 6일 오전 11시 국과수, 소방본부, 가스공사, 전기공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다음은 사망자 명단. △함진영(31) △제민정(22) △김지원(24) △서한결(21) △박성범(19) △김은경(25) △가안(28·스리랑카인) △제모누(26·스리랑카인) △필랑가(25·스리랑카인)

“강화 통유리에 미로 같은 구조가 피해 키웠다”

<앵커 멘트>

이 노래주점은 방이 수십개나 되고 구조도 거의 미로나 다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은 강화 통유리인데다 비상구도 막혀 있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이 난 노래주점 건물입니다.

강화 통유리로 거의 덮여 있어 유독 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특히 출입구와 떨어진 안쪽 방 인근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피해가 커진, 더 큰 원인은 방 2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미로 같은 'ㄱ'자 형의 내부 구조입니다.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면서 출입구를 못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구도 3개나 있었지만, 2곳은 불이 난 쪽에 몰려 있어 접근할 수가 없었고, 안쪽 것은 부속실을 지나야 외벽 창으로 통하게 돼 있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강태수(부산진 소방서 재난대응과장) : "룸 앞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구가 차단되는 바람에 뒤쪽 룸에 있는 손님들이 탈출을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 회사 동료 6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인터뷰> 쿠마르(사망자 친척) : "집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하고 아내가 있어요. 결혼해 갖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유가족들은 화재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부산 노래주점 화재, 왜 인명피해 컸나?

TV조선

[앵커]

이번 화재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건 건물 바깥벽이 통유리로 돼 있어 환기가 아예 되지 않았고, 업주가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불을 끄려다 실패하면서 불길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원인, 이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불이 난 건물은 2층부터 6층까지 외벽이 통유리로 돼 있습니다. 두께가 1cm 가량 돼 탈출이나 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3층 노래주점은 창문이 전혀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실내 ㄱ 자형 미로 구조도 화를 키웠습니다.

불은 노래주점 한 가운데서 시작됐고, 유독가스는 급속히 번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양쪽, 즉 출구와 비상구 방향에서 발견됐습니다. 출구를 찾다 질식사해 숨진 것입니다.

[인터뷰] 윤희태 /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장

"(질식사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 다른 의심을 할만한 요인은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상구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3개의 비상구 가운데 2개는 출입구 반대편이 아닌 주출입구 방향에 있어 접근을 못했고, 다른 하나는 구석에 있어 찾기 어려웠습니다. 노래주점 주인이 발화 초기에 직원과 함께 소화기로 불을 끄다 실패한 것도 피해가 커진 이유입니다.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2003년 이전에 지어져 강제 규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설비가 부실해 두 달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불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윤여준 / 부산시 부전동

"두 달 전에도 같은 건물 2층에서 불이나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도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부산 노래주점 화재 9명 사망...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Jtbc

[앵커]

어젯(5일)밤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이나 9명이 숨졌습니다. 3층에 위치한 데다 이처럼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비상구도 불길이 치솟은 주 출입구 쪽에 몰려있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였습니다. 먼저 윤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부전동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 이곳에 자리한 건물 3층 노래주점에서 어젯밤 8시 50분쯤 불이 났습니다. 불길과 함께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9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습니다.

[김승호/최초 목격자 : 연기가 심하게 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보니 사람들이 후다닥 내려가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불길은 처음 주 출입구 앞 쪽 방에서 시작됐고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미음 자 형태로 배열된 다른 방과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희태/부산진경찰서 형사과장 : 24번방과 21번 방 사이에 연소의 흔적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에서 뛰쳐 나온 손님들은 출입구를 찾지 못한 채 해마다 복도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노래주점 창문이 모두 폐쇄돼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다 건물이 낡아 스프링클러같은 자동 소화장치가 없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주 출입구 쪽 두 개의 비상구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화재 직후 업주와 종업원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대피 시점을 놓친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지난해에도 2층 유흥업소에서 불이 났던 것으로 드러나 소방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사망자 유족 : 구청장, 구청에 갔지만 코빼기도 안 보이고, 과장이라는 사람만 앉아서 모르겠다고 하고...]

경찰은 현장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업주의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 키운 비상구와 통유리...또 '인재'

【 앵커멘트 】

대형 화재가 나면 늘 그렇듯,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도 결국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상구가 3개나 있었지만, 쓸모가 없었고, 건물 미관과 방음을 고려한 통유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방관들이 노래방 출입구와 계단을 통해 쓰러진 손님을 구출해 나옵니다.

노래방 안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 불길 때문에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복도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손님도 탈출에 애를 먹었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 탈출·병원 이송 환자

- "시야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일어서서 보니까 출입구 쪽에는 아예 불이 다 나갔고요."

노래방 안에 비상구가 3개나 있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구는 주 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하지만, 이 노래방 비상구 2곳은 발화지점과 주 출입구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비상 탈출 경로가 한 곳에 몰린 것입니다.

또, 나머지 비상구 1곳도 부속실로 쓰이고 있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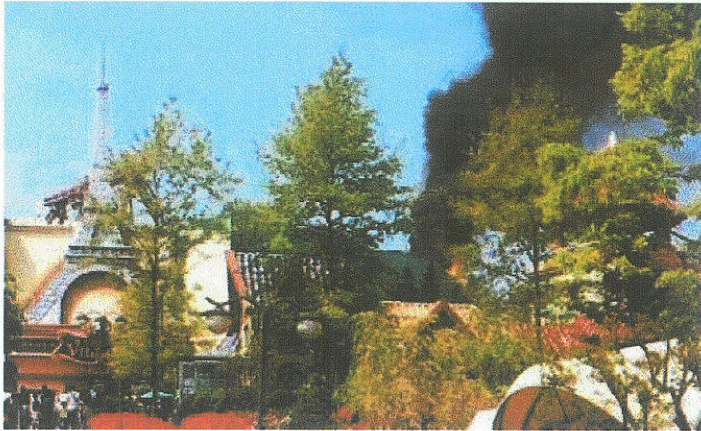
화재 안전보단 건물 미관과 방음을 우선한 외벽 전체 고강도 통유리도 손님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강화 유리와 간판 때문에 사다리를 통한 대피나 화재 진압,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탈출 손님

- "직원들이 플래시 같은 걸로 비춰줘서 계단으로, 처음엔 화장실에 갔다가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대형 화재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인재 논란, 하지만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6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놀이시설 지구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에버랜드 불... 200여명 대피

200여명 메스꺼움·구토 호소

어린이날 휴일 마지막 날인 6일 나들이객들이 몰린 에버랜드 놀이시설에서 불이 나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놀이시설 '지구마을' 2층 옥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7대와 에버랜드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불길은 '지구마을' 옥상과 외벽 등 시설 일부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에버랜드 측은 불이 나자 놀이시설 안에 있던 어린이 등 200여 명을 긴급대피시켰고, 불길과 연기가 시설 내부로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불길과

함께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와 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놀이시설 쪽으로 날리면서 연기를 마신 나들이객 20여 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등 휴일을 맞은 나들이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불이 난 '지구마을'은 배를 타고 돌며 세계 각국의 인형 모형물을 관람하는 곳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에 자칫 불이 안으로 번졌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점에서 불이 난 만큼 전기 누전 여부를 주로 조사하고 있으나, 담배꽂초 등에 의한 실화(失火)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용인=윤동빈 기자 ydb@chosun.com

에버랜드 '지구마을'서 화재, 대피 소동

놀이공원인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관람객 수백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오후 2시20분쯤 에버랜드 내 놀이시설인 '지구마을'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지구마을 건물 외벽에서 시작돼 나무재질의 벽면 일부(15㎡)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과 에버랜드 자체 화재진압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지구마을은 관람객이 작은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가면서 세계 곳곳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구경하는 놀이시설이다.

화재 당시 시커먼 연기가 발생했지만 건물 외부에서 불이 났고, 밀폐된 건물 내부로까지 연기가 들어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구마을 안에서 세계 각국의 인형 모형물을 관람하던 어린이 등 200여 명은 치솟은 검은 연기를 보고 놀라 긴급 대피했다. 또 불길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와 재가 강한 바람

을 타고 놀이시설 쪽으로 날리면서 연기를 마신 나들이객 20여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에버랜드 화재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에버랜드 측이 "화재 현장 등을 찍지 말라"고 하는 등 화재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버랜드는 불이 난 지구마을의 화재원인을 밝힌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전기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실화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중앙일보

용인 에버랜드서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6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리조트 내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주로 어린이들이 관람하는 놀이시설인 지구마을에서 발생했다. 불은 지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022면 사회

구마을 건축물 일부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면서 지구마을에서 세계 각국의 인형 모형물을 관람하던 어린이 등 관광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에버랜드는 불이 난 지구마을을 폐쇄하고 나머지 시설을 정상 운영했다. 에버랜드와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112 신고자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경찰이 위치추적 안하고 해매는 새 참변

해남 40대女 내연남과 함께 숨진채 발견

지난 5일 오전 3시 42분쯤 전남 해남경찰서 상황실에 112 전화가 걸려왔다.

40대 여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어~ 바위천국 앞에, 교동 바위천국 앞에 와주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상황실 직원은 정확한 위치와 용건을 물었지만, 이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 연결 시간은 33초였으며, 실제 통화 시간은 18초였다. ‘바위천국’은 해남군 황산면의 자원바위 주변에 정자와 산책로, 인공폭포 등을 조성해 꾸며놓은 공원이다.

그러나 해남경찰서 상황실은 신고자 목소리가 차분하다는 이유로 ‘3차 통화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구축된 이 시스템은 112 근무자가 버튼만 누르면 신고자와 119가 함께 연결돼 신고자의 위치를 단번에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살인·강도·성폭력·납치 등 강력사건’이라고 판단할 때는 가동하게 돼 있다.

해남경찰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2 위치추적법이 6개월 뒤 발효될



때까지 이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자의 목소리가 침착했고 위험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신고자가 숨지는 상황이 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인 3시 43분 바위천국에서 8km 떨어진 황산과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의 경찰관 2명은 지난달 늑장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을 의식해 새벽임에도 공원 입구에서 100m 떨어진 민가까지 탐문하는 등 일대를 수색했으나 신고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10여 차례 신고자에게 휴대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에도 실패했다.

경찰은 현장 도착 후 14분이 지난 4시 4분쯤 공원 입구에서 1km가량 떨어진 해남군 황산면의 한 창고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을 발견, 곧바로 119에 연락했다. 방화로 추정되는 이 화재로 112 신고자 문모(여·45)씨가 창고 내 숙소 출입구에 얽드려 숨진채 발견됐다. 함께 있었던 내연남 이모(54)씨도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6일 오전 7시쯤 숨졌다. 위치추적을 하지 않은 경찰이 신고자를 찾아 해매는 사이, 문씨가 내연남 소유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인화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씨의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씨와 함께 자기 술집에서 다름을 벌이다 이씨가 휘두른 술병에 이마를 맞았고, 5일 오전 2시쯤 함께 술집을 나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마 상처 외에 문씨 머리 뒷부분에서도 외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파편에 맞아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며 “이씨가 문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질렀는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남=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40대女 112신고 하고도 화재현장서 참변

경찰 '헛짚은 위치추적' 또 논란

해남경찰, 7분만에 도착 불구 1km 떨어진곳서 15분간 허비

경찰이 112에 도움을 요청한 40대 여성을 찾아 현장 인근을 확인하던 중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이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의 위치추적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이모(54)씨의 창고 겸 주택에서 5일 오전 4시 5분 불이 나 이씨와 문모(45·여)씨가 숨졌다.

해남소방서는 20여분 만에 불을 꺾으며 잔불 진화 과정에서 건물입구 안쪽에서 쓰러진 채 숨진 문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중화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6일 오전 숨졌다.

문씨는 숨지기 직전 해남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이씨와 딸다름 등을 밝히다 경찰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와 이씨는 내연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가 이날 오전 3시 42분 112 상황실에 전화해 "바위천국 앞이에요. 이쪽으로 와주세요"라는 말

을 하고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약간 취기가 있는 듯했으나 차분한 목소리였고 어유나 긴박한 상황은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문씨와 직접 통화한 시간은 18초, 통화연결시간은 33초였다. 이후 경찰은 3시 43분 출동 지령을 내렸고, 황산파출소 순찰차는 7분 뒤인 3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문씨가 말한 바위천국인 조정서 공원에서 신고 여성을 찾지 못하고 입구에서 100여m 떨어진 민가 1곳을 탐문한 뒤 이동했다. 그러던 중 1km쯤 떨어진 곳에서 불길 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살된 수원 20대 여성 사건을 상기해 새벽 시간임에도 민가를 탐문했다"며 "현장출동과 탐문 등이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이 일대는 주변이 농경지로 민가가 거의 없고 폭포와 바위, 정자 등이 조성된 '바위천국' 이외에 마땅한 이정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14~15분 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정확한 위치 파악과 함께 조기에 사고현장을 찾았다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이마를 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주택 겸 창고에서 5일 새벽 불이 나 창고가 전소됐다. 화재로 인에 있던 문모씨(45·여)와 이모씨(54) 등 2명이 숨졌다. 문씨는 112상황실에 전화해 긴급도움을 요청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신고지 위치를 찾는 동안 화재로 숨지 경찰의 부실한 위치 추적이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해남소방서 제공

쳐 해남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1차 검안 결과 문씨 시신의 머리 뒷부분에 의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 병화 여부

와 함께 문씨가 화재 이전 타살됐는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해남=이성일 기자 sitee962@kmbi.co.kr

경향신문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014면 사회

112신고한 40대 여성, 화재 현장서 참변

경찰, 위치 파악 헛짚어 논란

112에 도움을 요청한 40대 여성이 경찰들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늦어지면서 화재 발생으로 숨졌다. 경찰이 조기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사고현장을 찾았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해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4시 5분쯤 해남군 황산면 7씨(54)의 창고 겸 주택에서 불이 나 7씨와 함께 있던 여성 2씨(45)가 숨졌다고 6일 밝혔다. 7씨는 중화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화재가 나자 해남소방서가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소방요원들은 잔불 진화 과정에서 건물 입구 쪽에서 숨진 2씨를 발견했다.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7씨와 딸다름 중이던 2씨는 화재가 나기 20여분 전에 해남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2씨가 이날 오전 3시 42분쯤 112 상황실 요원과 33초간 통화했

으며 "교통 바위천국으로 와달라, 바위천국이다"라는 말을 하고 끊었다고 밝혔다. 상황실 지령을 받은 황산지구대 순찰차는 8분 뒤인 3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바위천국 일대에서 신고 여성을 찾아내지 못했고, 바위천국 입구에서 100여m 떨어진 민가 한 곳을 탐문하고 이동하던 중 길 건너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자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탓에 바위천국 일대만 탐문하다가 바위천국 수색을 마치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던 중에 불길을 확인한 것이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위치추적만 정확히 할 수 있었다면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위치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찾아낼 수 없었다"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12 신고자 위치추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사천시 산불..'야간진화용 항공기' 힘 못써

(사천=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6일 오후 8시50분께 경남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용산마을 뒷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3시간 이상 산림을 태웠다.

불이 나자 경남도가 국내 처음 도입한 야간 산불진화용 항공기(CL-215)와 공무원 150여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다지만, 발생보고가 늦은데다 야간에 지형마저 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사천시는 산불이 난 지 1시간가량 지나 도에 보고하면서 항공기 지원을 요청, 항공기가 현장에 물을 싣고 최초로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39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이 항공기는 인근 강에서 담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날은 안전문제를 고려해 사천공항에서 소방차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3차례 이상 현장을 왕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940512@yna.co.kr

YTN

북한산 산불...등산객 실화 추정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 수문벽 탐방로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림 3백㎡를 태웠고, 소방당국과 산림청 헬기 1대, 소방대원 등 70여명이 출동해 한 시간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청은 등산객이 버린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송변전시설 내진설계, 대폭 강화한다

한전, 배전설비 포함 설계기준 제·개정 용역 착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송변전설비의 내진설계가 원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배전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6일 한국전력은 현행 전력공급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송배전설비 내진설계 실무지침서 제정 및 개정 용역'을 발주했다. 아울러 한국지진학회에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자문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2003년 송변전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제정됐다. 이후 개정이 없었고 지난해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과 강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기준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준 강화는 변전시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지난해 3월 리히터 규모 6.3의 강도로 높은 변전시설의 내진설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원전 주변 변전시설의 내진설계가 약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 시 원전의 내진설계(리히터 규모 6.5)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전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표준안도 만들어진다. 표준설계안은 설치기기의 종류, 지역, 지반 등 각 조건을 두루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자는 설계안대로 설치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진재해대책법(2009) 제정에 따른 배전설비 내진설계 기준도 마련된다. 송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배전설비는 그동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송전시설의 경우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송전시설은 국토해양부 구조설계 기준에 따라 최대 풍하중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송전 첩탑에 적용되는 최대 풍하중은 리히터 규모로 환산하면 무려 8에 이른다. 계속 이래 남한에서 가장 강한 지진은 1978년 강원 홍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리히터 규모 5.2였다.

한전은 2014년 6월까지 관련 연구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만든 뒤 전체적인 보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지만 공사비와 설비 중요도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용역결과를 통해 적정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내진설계가 안된 변전소 224곳에 대해 2013년까지 427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희훈기자 hoony@

파이낸셜 뉴스

서울시 침수 방지 물막이판 1만4624개 보급

빗물펌프장 대폭 보강...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43개소에 추가 구축

서울시는 올여름 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상가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1만4624개를 보급하고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여름철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안전대책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상가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1만4624개

(주택 8624개, 상가 60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수해 현장을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인 민관합동커뮤니티맵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구현해 30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침수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자동알림시스템도 43개소에 추가로 구축한다. 이달 중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재난안전망'도 구축된다. 이 재난안전망에는 민간단체·시민 28만여명이 참여해 생활 거버넌스 수해대책을 집중 홍보하게 된다.

시내 빗물받이 48만여개소와 취약

지역 하수관거 723km를 준설하고, 새 말뚝물 펌프장 등 6개 빗물 펌프장을 증설한다. 목감천과 대방천의 치수벽과 하천 확장사업도 각각 추진한다.

수해가 발생해 도로가 침수될 경우 침수 1m전 도로를 통제하고, 교통상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중교통도 대폭 확충해 지하철은 1일 50회, 시내버스는 411대를 추가로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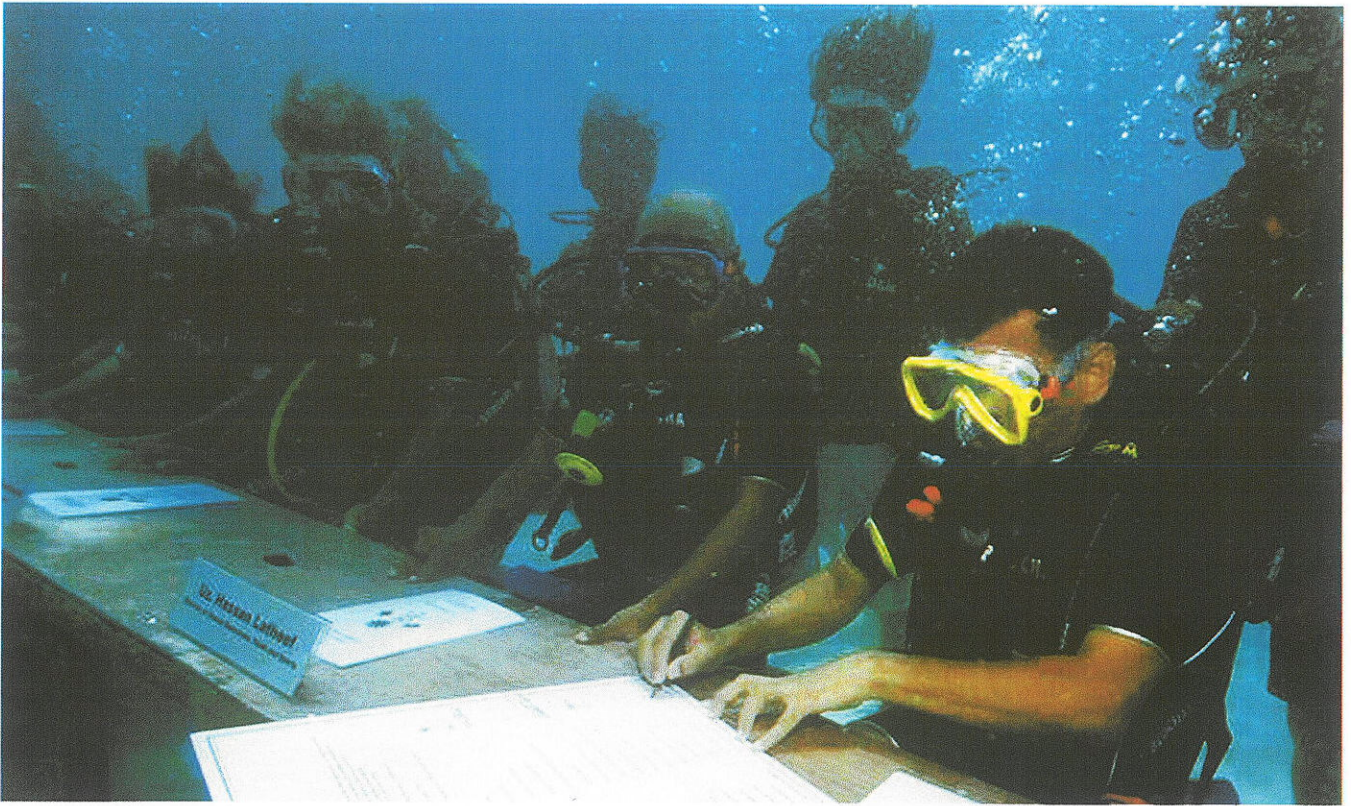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에 대비해 취약 계층인 노인·건설 노동자 등의 대책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방학기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감시단을 운영하고, 방학기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도 지원하는 한편 공원,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도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여름 강우량은 평년(501~940mm)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6~7월 기온은 평년(22~25도)보다 높고 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현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물에 잠길 몰디브, 당신 나라의 미래입니다



다큐 '아일랜드 프레지던트'

"아름다운 바다, 황금 해변, 천국과도 같은 섬."

그는 말을 이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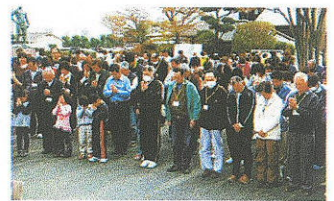
"우린 이곳에서 살고 싶다. (바다 밑으로) 사라질 수 없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일랜드 프레지던트: 나 시드의 도전>은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에 맞선 작은 섬나라의 생존 분투기를 담고 있다. "몰디브가 가라앉으면, 내일 뉴욕도, 당신의

다. 그는 민주화 투쟁으로 20차례 투옥됐던 인사다.

그는 "바다의 해수면보다 불과 2m 정도 높은) 몰디브는 언덕도 없이 낮게 누워 있는 나라다.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는 몰디브를 침몰시킬 것"이라며 영국, 미국, 인도 등을 돌며 탄소배출 규제에 힘을 모으라고 촉구한다. '휴양섬' 몰디브는 2100년이면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화는 상승한 해수면 때문에 바닷물이 해안 마을로 조금씩 밀려드는 광경을 비춘다. 영화에서 나시드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침수되는 현장을 돌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각국을 돌며 실상을 알린다. 영화는 물에 잠길 몰디브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이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촉구 결의안에 방수펜으로 서명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모습 등도 영상으로 보여준다. 390피파엠(ppm)에 달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국제사회와 관객에게 당부한다. "몰디브는 현재 지구온난화 재앙의 최전선에 있다. 이것은 세계 전체의 문제다."

이 영화는 9~15일 서울 씨지브이(CGV) 용산에서 열리는 제9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영화제 기간 중 12, 15일 이를 상영한다. 지난해 캐나다토론토영화제 관객상을 받았다.



서울환경영화제 9~15일 26개국 112편 상영

올해 영화제는 <아일랜드 프레지던트> 등을 포함해 환경을 생각하는 장·단편, 애니메이션 등 26개국 112편이 초청됐다.

지난해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를 다룬 <3·11 이와의 순지와 친구들> <핵의 나라> <오른쪽 사진> <쓰나미, 빗꽃, 그리고 희망> 등의 작품들은 원전의 위험성과 폐허에서 다시 희망을 엿보는 사람들을 비춘다. 영화 <러브레터> 등을 연출한 이와이 순지는 <...친구들>에서 "방사능 유출로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긴 것을 사죄한다"는 일본 교토대학 원자력 전공 교수 등의 인터뷰를 담았다. <핵의 나라>에선 원전 유치에 열정적이었던 고위 공무원의 반성 등을 통해 3·11 대지진 이후 원전을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바뀐 시선을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해안 지역에 골프장을 지으려는 자본가와,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싸움을 그린 <도널드 트럼프의 전쟁>, 캐나다 등

러 나라의 석면산업 현장을 기록한 <마지막 숨>, 북미 대도시의 담 건설이 북극 작은 공동체 마을까지 미친 영향 등을 다룬 <얼음의 땅, 깃털의 사람들> <왼쪽>, 도심의 빛 공해를 다룬 <별을 삼키는 도시>, 생태계 문제로 벌어져 가는 문제를 들여다본 <사라지는 벌> 등을 만날 수 있다. <펭귄의 섬> <흑등고래의 노래> 등 동물을 다룬 영화들도 있다.

올해 미국 선댄스영화제 다큐멘터리 심사 위원대상(단편)을 받은 루시 워커 감독의 <쓰나미, 빗꽃, 그리고 희망>이 개막작으로 선정됐고, 4대강 공사 이후 강변의 변화를 기록한 <더블스파크> 등 국내 영화들도 소개된다. 고래 구출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 <빅 미러클>, 국내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상업 영화들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유아·청소년 2500원.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사진 서울환경영화제 제공

온난화 맞선 섬나라 분투기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 호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선보여

나라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작품 속 경고처럼, 사실 이 영화는 인도양 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30년간의 1인 독재체제를 끝내고 2008년 몰디브 대선에서 승리했던 모하메드 나시드(45) 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활동을 기록했다. 다큐는 지난 2월 '자진 복임이나, 반대파의 쿠데타'란 논란 속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에 참석하기까지 1년여 여정을 따라간

중국 대기오염물질 정보 한국에 실시간 알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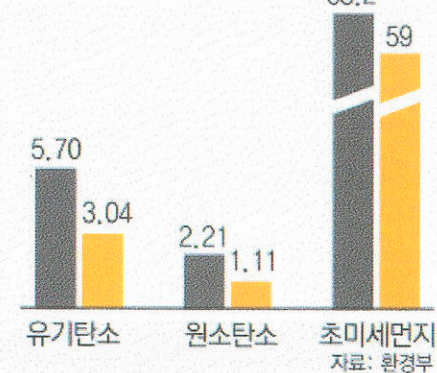
‘춘제 폭죽’ 연무 피해 심각
양국 공동대책연구에 합의

중국이 한반도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중 공동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처럼 주변국 대기오염의 진원지라는 점을 받아들여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상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특히 중국 내 오염물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에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중국 저우성셴(周生賢) 환경보호부장이 양자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특히 중국 춘제(春節·한국의 설날) 연휴 기간에 폭죽놀이로 발생한 연무(煙霧)가 한반도로 이동해 대기오염을 유발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무는 습도가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 먼지 같은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공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해 지표 가까이에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인 ‘안개’와 유사

연무와 황사 내 대기오염물질 농도 비교
(단위: $\mu\text{g}/\text{m}^3$) ■ 연무 ■ 황사



해 보인다. 하지만 연무는 공장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등이 수증기와 응집되면서 발생하는 탓에 안개와 달리 신체에 해로운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실제 황사보다 연무가 신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환경부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한경면 고산 일대에서 2009년 10월에서 2010년 6월 사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연무, 대기 질을 분석한 결과 황사 내 유기탄소(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입자물질) 농도는 m^3 당 $3.04\mu\text{g}$ (마이크로그램· $1\mu\text{g}$ 은 100만분의 1g)인 반면 연무 내 유기탄소 농도는 $5.70\mu\text{g}$ 으로 2배에 가까웠다. 연무는 황사에 밀려 한반도로 유입된다. 환경부는 내년 초 연무주의보, 연무경보 등 연무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윤중 기자 zozo@donga.com

'국민 오락장' 노래방 언제까지 화마에 방치할 건가

어린이날인 5일 부산 도심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한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후진국형 사고다. 불이 난 노래방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6층 건물의 3층에 자리 잡은 26개의 방은 통로가 '모'로 연결된 구조였다. 이런 특이한 구조로 인해 비상구 3개가 탈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비상구 2개는 불이 난 출입구 주변에 위치해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다. 나머지 1개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기가 힘들었다. 이용객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해도 미관과 방음을 위한 고강도 통유리가 건물 외부를 덮고 있어 잘 깨지지도 않았다.

국내에는 노래방이 3만6800개, 단란주점이 1만5000개에 이른다. 그나마 탈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3층에 위치한 노래방의 화재 대비가 이런 정도로 열악하니 비상계단밖에 없는 지하 노래방들은 어떤 상황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번 사고는 노래방 화재 방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화재에 대응한 자세는 한심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 119 신고

대신 자체적으로 진화(鎮火) 작업을 벌이다 실패하는 바람에 피해를 더 키웠다. 손님들을 끝까지 대피시키지 않고 종업원들만 먼저 빠져나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부산에서 그동안 노래방과 실내 사격연습장 등 건물 내 안전사고가 자주 났다. 부산시와 소방당국이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전점검과 소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조사해야 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의 특성상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상벨 소리가 손님들에게 들리지 않기 쉽다.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노래방 기기가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비상구의 위치도 알기 쉽게 표시해 놓아야 한다. 노래방 기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안전시스템은 답보 상태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래방은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다. '국민 오락장'이 화마(火魔)에 방치돼 있으나 안전한 사회와 거리가 멀다.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가 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일보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A35면 오피니언

또 화재 참사... 말로만 때운 예방대책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되풀이 되어야 하나. 어린이날인 그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주점에 불이 나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09년 1월 8명이 사망한 영도의 지하노래방 화재. 그해 11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제시장 실탄사격장 화재에 이어 부산에서만 3번째다. 2010년 10월에는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외벽에 화재가 발생해 37층까지 번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이번 역시 어김없는 인재(人災)다. 화재가 난 곳은 대피나 진압이 어려운 지하도 아닌 지상 6층 건물의 3층이었다.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비상상황에 정상적으로 대응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종업원은 화재발생을 소방당국과 손님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채, 안이하게 처리하려다 화를 키웠다. 창문 하나 없는 실내는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고, 뒤늦게 대피하려던 손님들은 출입구를 찾지 못해 좁은 통로에서 우왕좌왕하다 질식사했다.

소방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건물에는 지하주차장을 빼고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03년 완공된 건물이라서 당시에는 지상 층에 설치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3년 전 사격장 화재 참사 직후 소방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었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라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적어도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노래방, 단란주점만이라도 설치를 서둘렀어야 했다. 부산만이 아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한 곳이 전국 곳곳에 수도룩하다.

2년 전 사격장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국인 3명이 안타깝게도 함께 희생됐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스리랑카에서 온 산업연수생들이다. 외국인들에게까지 한국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나라. 그래서 화재참사가 되풀이 되는 나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구나 부산은 어느 곳보다 외국인이 많이 찾고 즐기는 국제도시이다.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당국은 또다시 철저한 예방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서울신문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031면 사설/오피니언

안전불감증이 빚은 부산 노래방 화재 참사

엊그제 저녁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불이 나 20대 손님 9명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현장감식 결과 불이 난 노래주점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데다 별도의 비상구는 물론 스프링클러 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이 나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런 유의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당국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라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도 업주와 종업원은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자체 진화에 나섰다 화를 키웠다. 연기가 빠져 나갈 곳도 없고 스프링클러 시설조차 없는 복잡한 미로형 구조는 처음부터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 인허가 못지않

게 소방 점검도 부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래방 화재 참사가 비단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소방 당국은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화재는 기본만 제대로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여전히 둔감한 우리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분노를 치밀게 한다. 업주들은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앵무새처럼 되뇌는 당국의 대책도 더 이상 듣기에 지겹다. 언제까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인허가 과정은 물론 평소 소방 점검에 이르기까지 비리를 낱낱이 밝혀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日 이번엔 지진 아닌 토네이도... 1명 사망, 40여명 부상, 가옥 200여채 파괴 6일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강력한 토네이도(회오리 바람)가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60km 떨어진 이바라키 현 쓰쿠바 시를 강타해 가옥 200여 채가 부서졌다. 이날 토네이도로 14세 소년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으며 2만여 가구가 정전됐다. 외신들은 일본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쓰쿠바=AP 로이터 연합뉴스



김용국 기자
“요즘 왜 더운지... 기후 변화 궁금해요” 부평 굴포천 기후변화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각종 기구를 만져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본부 주요 간부 현황

직책	나이	출신	출신교	주요 경력
맹형규 장관	66	서울	경북고-연세대	15~17대 국회의원, 정무수석, 정부무보
서필연 1차관	57	통영	동아고-고려대	행시 24회, 울산 행정부시장, 조직·인사·기획조정실장
이삼걸 2차관	57	안동	덕수상고-건국대	행시 24회, 경북 기획조정본부장, 지방재정세제국장, 경북 행정부지사
이경옥 차관보	54	장수	해성고-전북대	행시 25회, 전주 부시장, 전북 행정부지사, 국가기록원장
정재근 기획조정실장	51	논산	대전고-고려대	행시 26회, 충남 기획관리실장, 독일대사관 공사, 지방재정세제국장
김상인 조직실장	56	김제	전주고-서울시립대	행시 26회,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소장, 조직정책관, 제주 행정부지사
전충렬 인사실장	58	경주	경주고-경희대	행시 27회, 인사정책관, 울산 행정부시장,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	55	군위	경북고-경북대	행시 24회,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정보기반정책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장석홍 재난안전실장	57	익산	이리고-육사	201 특공여단장, 수도군단 참모장, 청와대 국방담당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	52	황성	용문고-성균관대	행시 28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제도정책관, 대변인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	53	대전	대전고-한양대	행시 28회, 대변인, 성과후생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장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	51	김제	전주고-서울대	행시 31회, 인사혁신팀장, 전북 기획관리실장, 과거사정리위 민족독립조사국장

공직발전 2012

(1) 행정안전부 ①

공직사회를 끌어가는 주역들에게 쏠리는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서울신문이 정부 부처를 움직이는 핵심 공직자들의 면면과 활약을 매주 2회(월·목) 게재한다. 정책 결정권을 쥐고 위직은 물론 능력자로 촉망 받는 실무 과장급까지, 이들의 동선을 출입기자들이 생생히 포착했다.

조직·인사 vs 지방행정 '두 축' 전문가 포진

행정안전부는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져 공무원 인사·조직과 지방행정을 아우르는 거대 부처가 됐다.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분리됐으나 2008년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다시 돌아왔고, 여기에 비상기획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행안부 조직은 크게 2개 축으로 나뉜다. 정부조직·인사 등은 1차관 소속이다. 지방업무는 2차관이 맡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넘어온 정보문화 기능은 1차관 소속이고 비상기획위원회 일부 기능은 2차관 아래에 있다. 지휘 라인을 따지면 2개 축이지만 엄격히 따져 기능상으로는 3개 축이다.

조직 문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순환 인사를 단행했지만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분야별로 경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내무부-총무처 라인 편 가르기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는다. 간부들이 다른 부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큰 틀은 장관 아래 1, 2차관-차관보-5실·3국장 체계다.

서필연(행시 24회) 1차관은 총무처 행정 사무관으로 시작해 울산 행정부시장을 거쳤고, 조직·인사·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친 '행정통'이다. 전자정부 본부장도 역임해 1차관 소속 모든

● 서필연 1차관

주요 보직 두루 거친 행정통

● 김상인 조직실장

OECD 정부혁신 소장 역할

업무를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삼걸 2차관은 서 차관과 행시 동기. 행정자치부 시절 '트리플 크라운'(3대 요직)으로 불렸던 행정과장·재경정책과장·감사과장을 모두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다. 덕수상고를 졸업해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한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경옥(행시 25회) 차관보는 전북도 물가지도계장으로 시작해 지방공무원교육원 조사담당관, 행자부 지방이양팀장, 자치제도과장,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행정부지사에서 국가기록원장으로 나갈 때는 본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지만 기관 운영자로서의 경험을 쌓고 본부로 복귀한 케이스다.

● 지방행정 경험 등 필수

기획조정실은 정재근(행시 26회) 실장이 이끌고 있다. 대변인 출신답게 자신의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부처 내

● 이삼걸 2차관

'트리플 크라운' 출신 지방통

● 전충렬 인사실장

비선호-인기 부처 '과감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매뉴얼 제작을 주도지휘하고 있다. 김상인(행시 26회) 조직실장은 정 실장과 함께 서 차관의 뒤를 이을 인물로 꼽힌다. 역시 대변인을 역임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혁신 아시아센터 소장, 제주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지시로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둑하다.

전충렬(행시 27회) 인사실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인사통'이다. 그를 처음 대면하는 후배들은 '무섭다'는 인상을 받지만 '업무 처리에 막힘이 없어 시원하다'는 평가로 바뀐다. 최근 단행한 대규모 인사 때에는 비선호 부서에서 일한 직원들을 인기 부서로 꼽히는 인사실로 배치해 내부 게시판에 감사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장광수(행시 24회) 정보화전략실장은 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장, 인터넷정책과장,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행안부로 옮

● 이경옥 차관보

국가기록원장서 본부 복귀

●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

전자정부 수출 확대 등 기여

겨 와서는 정보보호정책관과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지냈다. UN 전자정부평가 2회 연속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통한 전자정부 한류 확산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33기) 출신의 장석홍 재난안전실장은 육군본부 정책실장, 육군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2010년 12월부터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펼친 재난 대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귀근(행시 23회) 국가기록원 원장은 고시 출신 가운데 가장 선배다. 김경삼(행시 26회) 지방행정연수원장도 지방행정의 주요 자리를 두루 거친 만큼 오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와 중앙행정의 가교 3줄

3개 국(廳) 업무는 지방자치와 관련이 깊다. 3명 국장 모두 현안 지방행정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로 꼽힌다. 박동훈(행시 28회) 지방행정국장은 지방

● 정재근 기획조정실장

탈북주민 정착 매뉴얼 지휘

● 장석홍 재난안전실장

구제역 파동 때 신속한 대응

혁신전략팀장과 자치행정팀장 등을 거쳐 지방행정을 익혔다.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선임행정관과 행안부 대변인을 역임해 정무계 감각을 갖췄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병찬(행시 28회)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대전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청와대 행정관, 행자부 법무담당관, 행안부 대변인, 성과후생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장 등을 지냈다. 온화하면서도 꼼꼼한 일 처리와 뛰어난 대화력이 조직 내 강점으로 꼽힌다. 지자체 재정 위기 타개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심보균(행시 31회)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직장협의회가 선정한 '베스트 상사'에 뽑힌 '젠틀맨'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업무는 신중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평을 받는다. 자전기 대추전과 4대강 자전거기 통합 개통 행사를 이끌었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마을기업 운영 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공무원 시험에 고교 과목... 대졸 수험생 "역차별"

고졸 배려한 과목 조정 계획에 "회계·형법 등 전문성 상실" 비판

"9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3년 동안 까다로운 행정 관련 대학 전공 과목 공부에 들인 돈과 시간, 노력이 내년이면 다 허사가 될 판이에요."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학원가에서 만난 9급 일반행정직 공채 시험 수험생 박모(27·여)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내년부터 바뀌는 공무원 시험 때문이다. 박씨는 "고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과목을 개편한다는데, 그러면 나처럼 몇 년씩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대졸 수험생들은 어쩌란 말이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졸 출신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라"고 지시한 뒤 행안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자 기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3일 내년 9급 공채부터 행정학과 행정법, 형법, 세법 같이 대학에서나 배우는 직군별 필수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돌리고, 고교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을 선택 과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교 과목만 배웠어도 9급 공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개설된 정부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자 공청회' 게시판에는 찬반 논란글이 1,700여개나 올랐다. 한 수험생은 "공무원시험 경쟁률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할 정부가 되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냈다. 다른 수험생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계를 모르는 세무직과 형법을 모르는 검찰직 등 전문성을 상실한

공무원들이 양산돼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수준 저하를 우려했다.

물론 "어렵사리 한 전공 과목 공부 아까워 매년 시험에 도전하다 '고시낭인'이 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학원에 가 몇 개월씩 수강료 내고 행정학 같은 과목들을 배우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니 좋은 방안"이라며 정부 방침에 손을 들어주는 찬성 쪽 수험생과 학부모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시험공부에 매진하던 수험생들의 반대가 많았다.

행안부는 "9급 공채시험 과목에 대학 수준의 전공 과목이 포함돼 있어 고교 출신은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온라인 의견수렴용인 '전자 공청회' 게시판만 만들었을 뿐 관

련 공청회는 연 적이 없다.

이러다 보니 졸속 추진 비판도 나온다. 세무직 수험생인 윤모(34·여)씨는 "정부는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세무직 9급 시험에 정부 회계를 새로 포함시켰으면서 이번에는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말을 뒤집고 고교 과목만 선택해도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모순을 범했다"고 꼬집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하급직도 상식만으로 민원을 상대할 수 없는 행정 전문화 시대가 된 만큼 전문 지식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시험 과목을 공부 수행과 상관 없는 고교 과목으로 바꾸는 것보다 합격자의 일정한 비율을 고졸 학력자의 몫으로 할당하는 '쿼터제'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세종시 살기 좋아요, 대전이 코앞에 있어요”

대전시, 잇단 지역방문행사 중앙부처 공무원 가족 초청 세종시 이주 불안감 해소

세종시와 대전 및 충청도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세종시의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할 대전시는 중앙 행정공무원의 이주 촉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섰다. 시는 5일 오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가족 등 1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차 세종시 이주 공무원 지역 방문 행사’를 열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정주 환경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주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

해 마련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가족 모두 같이 이주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초청받은 공무원과 가족들은 ‘화폐박물관’을 시작으로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등 대전의 주요 문화 및 여가 시설을 관람했다.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조리사대회 현장도 둘러봤다. 이어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완공된 아파트 단지인 첫마을과 주변의 참샘초등학교 및 합강공원 등을 돌아봤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전의 유성, 둔산 지역 등 세종시 인접지역의 정주 여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 한밭수목원 같은 대규모 수목원이 조성돼 있는 데에 큰 놀라움과 관심을 표시했다.

지난달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방문해 세종시 이주 공무원 정착 지원 설명회를 연 대전시는 12일 ‘제2차 지역방문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대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주 공무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부처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시 한선희 정책기획관은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이주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도 세종시와 함께 상생발전 사업 38개의 발굴, 세부 추진전략 수립 등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도는 전자철판 등 첨단 교육시스템을 갖춘 세종시의 스마트 교육 환경은 내포신도시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접목하기로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세계일보

포항 공공기관 출입차량 체납조회 한다

市, 납세풍토 조성 특단 대책 보조금 집행시 체납여부 확인 물품구매·용역계약 등도 제한

“지방세 체납자는 포항시청에 받을 못 붙입니다.”

경북 포항시는 662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입금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연 3회 체납세 일제 기간을 정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조회 및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수익증권 압류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제한(5000만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포항시는 또 앞으로 시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구매, 용역계약 시 체납

여부를 조회한 뒤 체납액 징수 후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관내 154개 각종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시 체납조회를 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지급되는 보상금,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완납 여부 확인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해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청은 세입금 체납액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입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 및 구청 계약 관련 부서에 보급해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 지급 시 해당 체납자를 조회할 예정이다.

특히 세입금 체납액 가운데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 409억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납·복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정리팀과 합동으로 시 전 지역에 체납차량 합동 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시내 운행 중인 자동차관련 체납차량 약 19만6000대에 대해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한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포항시청 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해 체납액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체납차량이 포항시청 출입 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며 앞으로 종합운동장 등 공공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체납조회를 할 예정이다.

체납이 확인될 시 납부 독려와 병행해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며, 교육청·경찰서 등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5000여명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체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장영태 기자

부천·성남 398명 정규직 된다

(공공부문)

부천시설공단 비정규 255명 성남시 7월부터 143명 전환

부천시설관리공단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모두 25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늘어나고 신분이 안정된다. 성남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도 1133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확정했다.

부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 직군 통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차관리원과 가로환경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9급 일반직으로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연봉(기존 1950만원→2080만원)이 늘어나고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 승진 기회도 주어진다.

그동안 정규직이면서도 일반직에

비해 차별을 받았던 전기·기계·운전 등의 기능직 근로자들도 직군 단일화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박명호 부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원 사이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성남시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중 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전환 대상자는 본청 사무보조와 상담 직원, 보건소·도서관 등 사업소 근로자들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가 적용돼 기존 1280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난다.

나머지 214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도 연봉 인상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성남시는 앞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과 체육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3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유길용 기자

서울신문

2012년 05월 07일 월요일
015면 공공정책

“공무원 적성 미리 체험하세요”

24일부터 2012 공직박람회

대한민국의 공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2012 공직박람회’가 오는 24~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를 시작으로 광주(31일), 부산(6월 1~2일) 등을 돌며 열린다. 36개 중앙행정기관, 2개 헌법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54개 행정기관이 참여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박람회장에서 직접 기관 소개 및 채용 안내·상담 등을 진행한다.

올해 공직박람회에는 고졸 공직

자 채용 확대 흐름에 맞춰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변화 등 개편 방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채용 직무 분야, 응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상세 정보와 현장 원서 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대학생 등 청년 취업자들 뿐만 아니라 고교생,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에서는 공무원 직업 적성을 테스트하고 모의시험도 치를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삼성경제연구소〉

행정망에 SERI 연결 추진

정책방향성 기업편향 우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용 내부망으로만 운영되는 정부지식행정센터(GKMC)에 외부망인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내부망에 외부망을 연결하는 사실상 첫 사례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정보 접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지식행정센터 시스템에 SERI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일주일 정도 기술적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전면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72개 행정기관은 망 분리 정책에 따라 업무용 시스템만으로 내부망을 이용하고 있다. 유해한 외부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내부망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외부 인터넷망에 들어갈 경우에는 내부망을 꺾다가 다시 별도의 하드디스크로 연결된 외부망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SERI의 CEO 인포메이션, 연구보고서, 경제포커스 등 콘텐츠에 손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내·외부망 분리 원칙에 따라 SERI는 정부지식행정센터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 예정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SERI 자료에 실무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외부망 연결의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태범 (한국방송대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가 다양한 정보를 고르게 접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한 가치를 띠 수도 있는 특정 기업 연구소의 보고서만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편향적으로 노출시키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업무 환경이 만들어질 경우 자칫 정부의 각종 정책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SERI뿐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이나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성과와 순차적으로 연계해 정부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김정은, 중국 방문 추진 북·중 정상회담으로 권력승계 마침표 속셈

넷케이 "북·중 의견 접근" 보도

북한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지난달 하순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조선 노동당 국제비서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의향을 전달했다"며 "후 주석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사망 이후 당(제1비서)·정(국방위 제1위원장)·군(최고사령관)을 모두 장악한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될 것이라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국의 권력 교체(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데다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김정은을 이른 사일 내 초청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 입장에서 떠나려는 후진타오 주석이 아닌 시진핑 등 차기 중국 지도부와와의 만남을 선호할 것이라 관측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김정은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경제를 개선하고 올해 출범하는 차기 중국 지도부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 정상회담이 거론되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지는 분위기다.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핵실험 위협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에너지 및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미 북한 측이 '당장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해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며 낸 대북 공동성명을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실험 위협으로 임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핵실험 강행으로 초래할 뒷감당을 북한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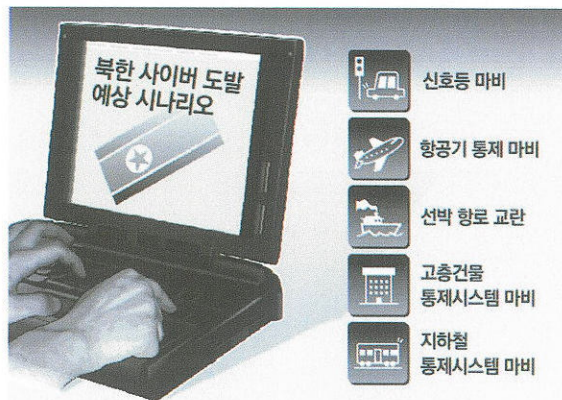
김수정 기자 sujeong@joongang.co.kr

시기는 연말·내년 초 예상 양국 정상회담 거론되며 북 3차 핵실험 우려 줄어

를 통해 권력 승계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정일 생전 마지막 두 차례(2010년 8월, 2011년 5월) 중국 방문 때마다 후계자 김정은의 동행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 김정은의 직책(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대한 의전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안정'을 전략적 목표로 정한 중국이 김정은을 후계로 인정하긴 했지만, 직책을 갖추지 못한 김정은에게 정상급에 준하는 의전을 해주긴 힘들었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은 이제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 지위에 올랐고, 정상외교 의전을 위한 격은 모두 갖췄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방중은 시기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北 사이버 공격 5분이면 교통 전력 증시 다 무너져”

■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경고

일요일 오후 9시, 시곱바늘이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 일대 전력이 동시에 나갔다. 용산미군기지 정부중앙청사 세종문화회관 모두 갑작스러운 정전에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시각 KTX 서울역 안에서도 대혼란이 빚어졌다. 열차 출발시간과 플랫폼을 알리는 전광판이 모두 작동을 멈췄다. 열차들도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하철 통제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철로를 따라 수천 명의 시민을 태운 '살인 열차'들이 내달렸다. 지상 위 신호등이 꺼지면서 도심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사이버 도발에 나설 경우 5분 안에 남한의 주요 시설이 모두 초토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 개시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둔 '타임 бом(time-bomb)'을 장착한 스틱스넷만 있으면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KTX 인천공항 경찰청 증권거래소 등 주요 기반시설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스티क्स넷은 2010년 7월 처음 발견된 악성코드로 독일 제어시스템전문개발사인 지멘스의 운영시스템 WinCC를 공격한 바 있다.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 발전소와 중국 산업시스템 1000여 개도 감염돼 피해를 봤다. 임 원장은 "북한이 스틱스넷 샘플을 구해 변종한 뒤 이를 USB에 담아 국내 주요 시설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며 "지하철 신호시스템을 통제해 망속에서 지하철을 충돌시키고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전력과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면 전국이 정전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상수도시스템을 마비시켜 단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티क्स넷-EMP탄 터뜨리면 정전-열차충돌-항공기추락... IT기반시설 동시에 초토화 대혼란 틈타 군사공격 할수도

은 연쇄충돌사고로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과 주요 항구도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하늘 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악의 '사이버 도발'을 해온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야기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자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행기와 선박을 겨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공격을 시도한 북한이 전자기파(EMP) 폭탄이나 변종 스틱스넷(제어시스템 악성코드) 등 고차원의 공격 기술을 쓸 경우 사회 전반의 통제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사이버 공격으로 상대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반시설을 마비시킨 뒤 대혼란을 틈타 본격적인 군사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기반시설 인근에서 EMP 폭탄을 터뜨리는 방법도 있다. EMP 폭탄은 크기에 따라 작게는 큰 방 하나 정도의 규모부터 크게는 수백 km 반경에 있는 디지털시스템을 파괴한다. 북한은 주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EMP를 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해 군 당국은 2015년까지 청와대와 군 지휘부 등 주요 전략시설에 EMP 방호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몇 년 안에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EMP탄을 개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런 사람이 진짜 장관이다

김진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4·11 총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이성(理性)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음해·선동세력이 얼마나 저질인지 생생히 목격했다. 야당은 어설피게 이들과 어울리다 자질문의 뒷에 걸리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광우병 사건에서도 이성을 되찾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동요 없이 과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광우병 촛불집회는 별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매미가 되려 했으나 귀뚜라미에 머물렀다. 근본적으로 광우병 불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래권력’ 박근혜가 미국산 쇠고기 갈비탕을 먹었다. 처음에 그는 ‘안전확인 때까지 검역 중단’을 주장했다. 그런 그가 갈비탕을 먹은 건 미국 쇠고기 안전 ‘인증 샷(shot)’이다. 요 며칠 새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는 크게 줄고 있다. 이번에 한국인은 세계를 상대로 체면을 세웠다. ‘과학에 따라 행동하는 국민’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 4년 전 한국은 괴담과 선동에 휩쓸렸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이성과 과학의 놀라운 승리다.

이런 변화의 일등공신은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이다. 지난 4월 25일 새벽 그는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목장에서 광우병 소가 나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일부 간부는 검역 중단 쪽이었다. 그러나 장관은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발병의 형태, 미국 쇠고기의 안전 그리고 한·미 무역마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광우병 투쟁단체와 야당은 아예 수입 중단을 주장했다. 박근혜의 여당은 검역 중단을 촉구했다. 검역 중단은 사실상 수입 중단이다. 대통령과 장관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관은 국회에서도 소신을 수호했다. 여야는 몰아붙였

지만 장관은 국제기준 등을 설명하며 맞섰다.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짓(검역 중단)을 하느냐”고도 했다. 표현은 거칠었지만 논리는 100% 맞았다. 국회는 결국 물러섰다. 상임위는 검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작 본회의는 이를 유보한 것이다.

서규용의 소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초순 소 값이 폭락했다. 축산농민들은 정부 수매를 요구하며 소를 끌고 서울로 올라오려 했다. 서 장관은 “자리를 걸고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당시는 구제역 방역기간이었는데 그는 “만약 소떼 이동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 수매도, 소떼 상경시위도 없었다.

1988년 서규용은 채소과장이었다. 풍작으로 고추 값이 폭락했다. 농민들은 과천청사로 몰려가 정부 수매를 외치며 시위했다. 농민들

의 거친 손길에서 과장은 와이셔츠가 다 찢어졌다. 밤에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당시 장관은 자신의 출신 지역인

특정 도(道)의 수매물량을 좀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 서 과장은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과감히 경고하고 있다. 그는 여야 공약대로 하려면 다음 대통령 5년간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지 뽑아냈다. 결과는 민주당 165조원, 새누리당 75조원이었다. 많은 국민이 깜짝 놀랐다. 박 장관은 과학이란 칼로 정치의 허풍을 발라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실에서 그를 ‘정직한 한국인’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정권에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原點)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엔 ‘평양 참문’을 때릴 수 있는 한국산 크루즈 미사일을 공개했다. 김정은 정권에 ‘참문’은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가 되고 있다.

이상득·최시중·박영준은 이명박 정권의 낙동강 전선을 허물고 있다. 그 무너지는 전선을 특공 3인조가 지켜내고 있다. 서규용·박재완·김관진이다. 흔히 공무원엔 영혼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특공 3인조는 아니다. MB 말년에 장관 복이 있는 건가.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서규용, 소신으로 ‘검역 중단’ 막아

1월 소떼 상경시위도 원칙·단호 대처

박재완·김관진과 ‘소신 특공 3인조’

진보당 당권파, 정말 不正 없었으면 自請해 수사받으라

통합진보당은 5일 밤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불참한 가운데 인터넷망으로 진행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의 책임을 물어 4명의 공동대표와 당내 경선을 거친 비례대표 후보 14명 모두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또 부정선거 관련자는 전원 당기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12일 상위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한 후 현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처리가 이대로 이뤄지면 당권파의 핵심인 비례대표 2, 3번 이석기·김재윤 당선자의 국회 입성이 물 건너간다. 이정희 대표가 물러서고 비대위마저 비당권파 손에 넘어가면 당권파는 6월말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권(黨權)을 놓칠지도 모른다. 당권파가 “당내 진상조사가 엉터리였다”며 아예 경선 부정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인 듯하다. 당권파는 4일 낮부터 시작된 운영위에서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 표결을 막기 위해 고의 지연 발언 등 온갖 수단을 써가며 회의를 19시간 동안이나 끌었다. 비당권파가 소집한 회의에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았지만 비당권파가 인터넷 전자회의로 회의 방식을 바꾸자 아예 불참했다.

당권파 당선자들이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그걸 내다보고 당권파는 당선자 사퇴를 거부하고 당 안에서 비당권파와 죽기살기로 싸워 경선 부정 의혹을 깔아뭉개려 하는 모양이다. 국민을 깔봐도 너무 깔본다. 이번 경선 부정 의혹은 진보당에서 한술밥을 먹던 식구들이 먼저 꺼냈다.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였다는 결론도 한 지붕 아래 식구들이 내렸다. 과거 진보당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당권파들의 이런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통칭 NL(민족해방)계로 불려온 당권파에는 과거의 주사파와 한때 북한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邪惡)한 체제인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해온 세력답게 부정투표로 당원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정치행태 역시 북한을 닮았다.

진보당 당권파는 자기네 식구 손으로 만든 당내 진상 조사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까 봐 미리 발을 뺀고 있다. 진실을 땅속에 파묻자는 얘기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들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자신이 있거들랑 자진해서 검찰이나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마땅하다.



저축은행 부실 책임 철저히 가려야

금융감독원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퇴출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앞으로 추가로 퇴출되는 저축은행이 더 없겠느냐는 의구심에서다.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저축은행에서도 일부 대량 예금인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실 징후가 나타났으나 한번 더 자구노력의 기회를 줬던 6곳의 저축은행 가운데 규모가 큰 4곳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퇴출된 사실이 이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당시에 부실 저축은행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더라면 이번과 같은 혼란과 불안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실 저축은행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영업정지가 최종 조치”라며 더 이상의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 영업 중인 나머지 저축은행들 중에는 추가 영업정지 대상이 없다는 얘기도.

금감원은 이 같은 다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금융의 바탕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방침도 약속대로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 전체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와중에 퇴출 대상 저축은행 중 한 곳인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이 회사 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법천지의 시대나 있음직한 한심하고도 몰지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는 고사하고 고객과 회사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저축은행 부실에는 이처럼 금융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큰 몫을 했다.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과 오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